OPEN
출처표시 상업적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MAGAZINE

KOICA

2025 VOL.7

Central Asia Shared Future

커버스토리
한국-중앙아시아, 유라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중견국 연대로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중앙아시아

기획 특집
중앙아에 꽃피운 '한국 스타일' 전자정부

콘퍼런스
2025년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

중앙아시아, 함께하는 미래







리더스 레터

04 **“MAGAZINE KOICA에 할 말 있어요!”**
독자 목소리

ODA 트렌드

06 **지금 세계에선 무슨 일이!?**
개발협력 분야 글로벌 동향

커버스토리

08 **한국-중앙아시아, 유라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중견국 연대로**
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학과장 특별 기고

기획 특집

10 **한눈에 보는 중앙아시아**
ODA 인포그래픽

12 **의료 인프라 취약국에서 중앙아 의료 강국으로**
우즈베키스탄 질병 부담 경감을 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사업 외

17 **한국 손잡고 키운 기술 인재 꿈**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20 **중앙아시아에 ‘스마트 전력’이 흐른다**
타지키스탄 전력 소외지역 전력망 구축 사업 외

22 **중앙아에 꽃피운 ‘한국 스타일’ 전자정부**
키르기스스탄 행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및 역량 개발 사업

24 **‘기술 교육부터 자치까지’ 스스로 성장하는 마을 만들기**
키르기스스탄 통합적 농촌개발 사업

28 **‘민간 투자 유치’ 우즈벡 지원 사업이 모범 사례가 된 까닭**
GGGI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공화국의 지역사회 주도 친환경 재건을 통한 아랄해 위기대응 사업 외

31 **국립외대 봉사단 파견 30년 언어를 넘어 마음을 잇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 한국 문화 인식 제고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34 **타지키스탄 미래 이끌 ‘씨앗’이 되리**
글로벌 연수 사업 연수생과의 만남

38 **“코이카의 ODA 노하우, 잘 배우고 갑니다”**
나즈굴 샤리포바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 매니저 인터뷰

41 **“고려인 강제이주의 역사를 전하는 작품 남기고파”**
고려인 미술 거장 문빅토르 화백 인터뷰

44 **이주의 역사 품은 골목, 공존의 가치를 노래하다**
한국 속 작은 중앙아시아, 광주 ‘고려인마을’

행사 리뷰

48 **코이카 날개 단 한국 기업, 글로벌 시장으로 ‘훨훨’**
2025년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

사업 리뷰

53 **아태 지역 대기오염, 환경위성 ‘판도라’로 공동 대응**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56 **“학생, 교사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혁신 실험”**
탄자니아 잔지바르 중등교육 통합적 교육 환경 개선 사업

INTERVIEW

58 **“ODA 사업 통한 건축은 사람 살리는 일”**
방명세 정림씨엠 대표 인터뷰

에세이

62 **캄보디아와 한국을 잇는 다리**
숨 솜닝 코이카 캄보디아사무소 현지 직원

글로벌 ODA

64 **공적개발원조는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하는 연대 방식**
프랑스대사관 직원이 들려주는 프랑스의 OD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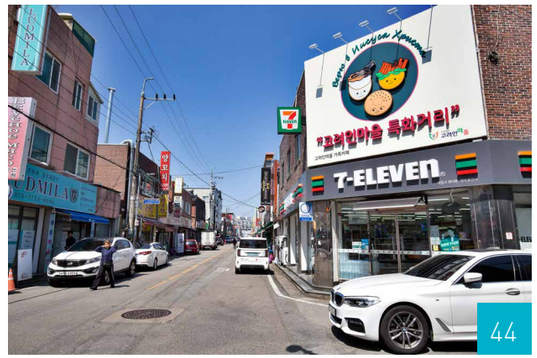
기관소식

67 **KOICA NEWS 모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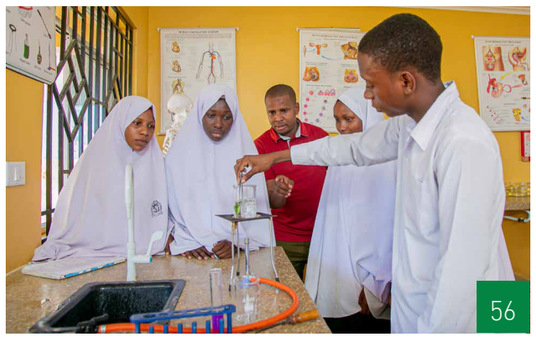
맺는말

73 **중앙아시아와 호혜적 파트너십 견인하는 개발협력 이어갈 것**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











독자 목소리

"MAGAZINE KOICA에 할 말 있어요!"

"내부(코이카) 직원의
인사이트를 담은 칼럼이나 글도 함께
게재하면 좋겠어요. 실무를 하는 직원들만큼
깊이 있게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고민하고 현실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테니
유의미할 것 같아요."
- 휴대폰 뒷자리 5531님

"MAGAZINE KOICA를
항상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개발협력 사업 소식을 많이 전해주시고
세계 곳곳에 파견 가 있는 우리 봉사단원들의
일상생활, 프로젝트, 현지 문화 소식도 많이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대폰 뒷자리 7210님

"국내 국제개발협력 관련
기관이나 학교를 소개하는 콘텐츠를
시리즈로 만들어 향후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이나 청소년의 진학 및 진로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휴대폰 뒷자리 1312님

"MAGAZINE KOICA가
다양한 현장 사례와 수혜자 인터뷰 등
생생한 스토리를 더 많이 담아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 트렌드와 코이카의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심층 콘텐츠도 추가해 주세요."
- 휴대폰 뒷자리 3764님

"코이카의 다양한
활동을 전하는 MAGAZINE KOICA는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보기 드문,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해외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사진이 담긴 '현장 이야기' 코너를 가장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덕분에 코이카의 철학과 실천이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 휴대폰 뒷자리 4280님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사업 관련 내용을 매번
쉽게 풀어내서 읽기가 쉽고 친근합니다.
10년여 전에 코이카 해외 인턴십에 참여한 적이
있어 코이카에 대한 추억과 애정이 있는 독자로서
앞으로도 널리 사랑받는 MAGAZINE KOICA가
되길 바랍니다."
- 휴대폰 뒷자리 9882님

"여러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강화해 더욱 많은
사람이 코이카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는 원조하는 나라가 된 우리나라에
자랑스러움도 느끼면 좋겠습니다!"
- 휴대폰 뒷자리 2675님

"코이카 지원을 받은
지역사회의 변화 과정을 장기적으로
추적하는 연속 기획물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 사업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하며
실질적인 발전 사례를 보여주면 독자들에게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휴대폰 뒷자리 9101님

"국제개발협력 분야
업무를 하면서 매번 MAGAZINE
KOICA를 정독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있어
배울 점이 많고 유익해 앞으로도 계속 정독해서
이 분야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휴대폰 뒷자리 3180님

"접근성 좋고 편하게 즐기는
콘텐츠를 만들어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휴대폰 뒷자리 0908님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립니다

MAGAZINE KOICA VOL.7을 읽고 느낀 점이나 바라는 점, 그밖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늘 독자 여러분의 의견에 귀 기울여 더 나은 MAGAZINE KOICA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은 VOL.8 독자 목소리 페이지에 게재해 드리고 음료 교환권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 의견 보내주실 곳: press@koica.go.kr**



• 미국 국제개발처가 공식 폐지되면서 글로벌 취약계층 보호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미국 국제개발처가 해외 원조를 위해 밀가루 포대들을 운반하는 모습이다.

개발협력 분야 글로벌 동향

지금 세계에선 무슨 일이!?

미국 국제개발처 폐쇄: 현실이 된 '미국발 원조 공백'

미국 국제개발처(USAID)가 공식 폐지됐다. 지난 7월 1일(현지 시각)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대외 원조를 다시 위대하게'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7월 1일부로 USAID를 통한 해외 원조를 공식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까지의 원조 활동은 실패했다"라며 "앞으로는 수혜국과 교역을 통한 상생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미국의 정치 리더와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지 W. 부시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한목소리로 트럼프 정부의 이번 조치를 비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해외 원조는 선한 일이며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USAID 해체는 엄청난 실수"라며 강도 높은 비난에 나섰다. 유엔(UN) 관계자 등 글로벌 협력 전문가들도 "USAID는 글로벌 취약계층 보호에 소요되는 자금 중 40%를 담당해 왔다"며 "USAID의 공백이 재난, 기후위기, 빈곤 등을 겪는 곳에 극심한 위협을 가져올 것"이라며 경고했다. 지난 6월 30일(현지 시각) 세계적 의학전문 학술지 '랜싯(The Lancet)'은 USAID 폐지로 인해 2030년까지 450만 명의 어린이를 포함한 1,400만 명이 사망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설립 64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USAID는 미 국무부 산하로 편입되며, 비워진 USAID 건물은 FBI 본부로 사용된다.

유엔인구기금: 저출생, '낳기 싫어서'가 아니라 '못 낳아서' 생긴 현상

대부분 성인 남녀가 '출산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는 유엔(UN)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 6월 10일(현지 시각) 유엔인구기금(UNFPA)은 '2025 세계 인구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 미국 등 14개국 성인 남녀 1만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도한 양육 비용 ▲높은 집값 ▲불안정한 일자리 ▲세계 정세의 불확실성 등 경제·사회적 요인이 성인 남녀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자녀를 갖지 못했거나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해당 연구를 이끈 UNFPA의 나탈리아 카넴 박사는 "이번 연구로 저출생이 '자발적인 비선호'가 아니라 '출산 및 양육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 때문에 생겨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유급 출산 휴가, 양육 비용의 현실화 등 출산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라고 지적했다.



• 세계 각국에서 과도한 양육비, 높은 집값 등으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성인남녀가 늘고 있다.

유엔세계식량계획: 기아 '핫스폿' 13개국 지정 "국제사회 도움 시급"

가자, 수단, 남수단, 아이티, 말리 등 13개국이 국가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기아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기아 핫스폿'으로 지정됐다. 지난 6월 16일(현지 시각)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기아 핫스폿'이란 보고서를 공동으로 발표하며 "이들 지역에 5개월 이내 시급히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 인구 1만 명당 2명이 매일 직접적인 굶주림이나 영양실조 등 관련 질병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가 전체 인구 중 20%가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며, 이 중 30%가 아동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 국제기구는 "기아 핫스폿은 대부분 기후변화 및 그로 인한 이주나 자연재해, 분쟁, 경제 붕괴 등으로 발생한다"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 유엔세계식량계획이 '기아핫스폿' 13개국에 조속히 특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 엠폭스 '비상사태' 다시 선포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수공통전염병인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발생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다시 선포했다. PHEIC는 WHO가 보건 위협에 대해 발령하는 경고 중 가장 높은 단계로, 전 세계적 확산 가능성이 있을 때 선포한다. 엠폭스에 대한 PHEIC는 지난해 8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인근 국가로 질병이 퍼지면서 선포했는데, 올해 초부터 다시 확산해 시에라리온을 중심으로 폭증하는 모양새다. 엠폭스는 당초 사람과 동물의 접촉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들어 사람 간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 WHO 관계자 등 국제 보건 전문가는 "에볼라·코로나와 같은 파괴적 전염병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더 밀접한 감시 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세계보건기구가 엠폭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유엔: 제3차 UN 해양총회 개최 "바다, 정복 아닌 보존 관점으로 봐야"

지난 6월 9일(현지 시각)부터 닷새간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제3차 유엔해양총회(UNOC)에 참석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깊은 바다는 '새로운 신대륙'이 아니다"라며 "이제는 바다를 정복이 아닌 보존의 대상으로 봐야 할 때"라고 일침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발언은 지난 4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창한 '심해자원 채굴'에 대한 반대 의사 표명과 세계 각국에 글로벌 해양조약(BBNJ) 비준 참여 호소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BBNJ는 전 세계 공해의 30%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국제 협약으로, 전 세계 60개국이 비준해야 효력이 발효된다. 현재까지 50개국이 비준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는 2028년 열리는 제4차 유엔해양총회를 칠레와 공동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한 상태다.



• 세계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바다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기술 국제 공모전 개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코이카와 함께 최빈개도국과 군소도서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기술 국제 공모전 'AICA 어워즈'를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에선 ▲농업 ▲에너지 ▲물 ▲폐기물 ▲조기경보 시스템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혁신 AI 설루션을 찾는다. 코이카는 지난해 11월 19일(현지 시각)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당시 UNFCCC와 맺은 '기후 미래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이번 공모전을 공동 주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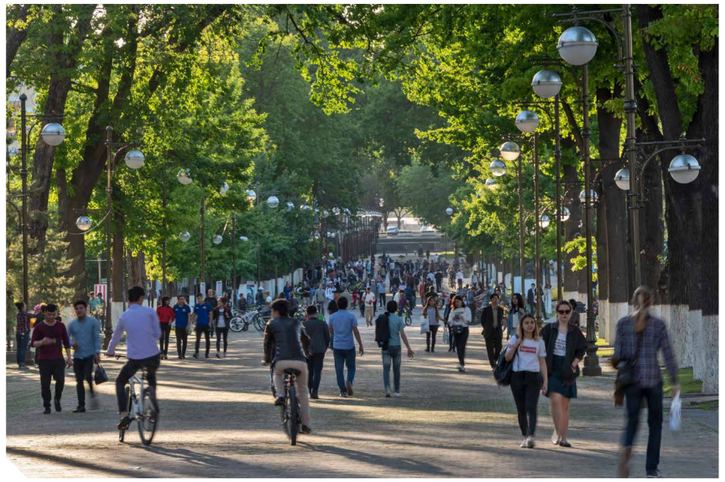
• 코이카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공동 주최하는 'AI for Climate Action Award' 공식 포스터

최종 우승자에겐 오는 11월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현장에서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다. K

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학과장 특별 기고

한국-중앙아시아, 유라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중견국 연대로

고구려 사신 벽화가 남아 있고, 30만 고려인 동포가 거주하며, 한국을 자국 경제 성장의 모델로 삼고, K-컬처에 열광하는 곳.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 서쪽으로 6시간 날아가면 마주할 수 있는 곳, 바로 '중앙아시아'다. 1991년 체결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어느덧 30년을 넘어섰으며, 2025년 기준 한국 사회에는 무려 15만 명의 중앙아시아인들이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다. 알고 보니 이토록 가까운 중앙아시아, 오늘날 한국에 어떤 정치, 경제, 외교적 의미를 가지는지, 앞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는 어떤 미래 지향적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지 살펴보자.



•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시내의 브로드웨이 거리. 젊음과 자유가 넘치는 공간으로 주말이면 많은 사람으로 북적인다.

유라시아의 중심, 그리고 막대한 에너지 자원

중앙아시아는 '스탄'으로 끝나는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모인 지역으로, 모두 구 소연방 출신이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위치하여 북으로는 러시아, 남으로는 인도, 서로는 유럽, 동으로는 중국으로 둘러싸여 있어 말 그대로 사방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진다. 이 덕분에 중앙아시아 지역은 고대부터 문명과 물자가 오가던 번영과 융합의 장소였으며, 오늘날에는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 등 고대 실크로드 거점 도시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 블루오션으로 부상 중이다.

21세기 들어 중앙아시아는 자원과 인구 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다.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리튬, 희소금속 및 희토류 등의 각종 에너지 광물 자원의 보고(寶庫)이며, 젊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5년 기준 중앙아인 평균 연령은 26.7세이며, 최근 연간 약 100만 명씩 출생해 2050년 중앙아시아 인구는 1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자원, 젊은 노동력, 지리적 연결성 등은 오늘날 중앙아시아가 세계 강대국들의 러브콜을 받는 가장 큰 이유다. 산업강국인 한국 역시 중앙아시아 자원 부국들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다.

30년 우정 한-중앙아 외교 관계, 성과와 과제

1990년대 초반 중앙아시아 5개국의 독립과 함께 시작된 한국-중앙아시아 외교 관계는 2024년 30주년을 맞이했다. 역대 한국 정부는 다양한 전략과 개념(북방정책, 자원외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북방정책, K-실크로드 등) 속에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을 지속해왔다.

가장 최근에 성사된 2024년 6월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담은 대표적 자원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추진됐다. 에너지 자원 개발,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기술(ICT) 협력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에너지 및 광물 자원은 한국과 3국 공통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협력 분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진출이 본격화한 계기는 풍부한 에너지, 광물 자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핵심 광물 자원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어 한국 정부 역시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맥락에서 카자흐스탄과의 리튬 등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체결,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세계 5대 가스전인 '갈키니시' 가스전 탈황설비 합의서 체결 등은 향후 한국의 안정적 자원 공급망 확보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 지향적 협력 로드 구축

중앙아시아와의 경제, 통상 부문 협력 강화는 한국 경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한국 경제의 외연 확장이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해외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중국, 일본, 미국 등 기존 무역 파트너 외에 새로운 경제 협력 파트너 발굴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빠르게 성장하는 인구를 가진 잠재력 있는 소비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또한 유라시아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 물류망을 활용해 유럽과 아시아 시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거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에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잠재력은 크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한국은 우라늄과 희토류 등 광물 자원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다. 게다가 공급망 역시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한정돼 있다. 만일 주요 광물 자원 등을 중앙아시아로부터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면, 한국의 자원 공급망 다각화를 비롯해 경제적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편, 인구가 급증하는 중앙아시아 도시 내 스마트시티 건설이나 통신, 도로, 전력망 등과 같은 인프라 구축과 ICT 협력 역시도 한국의 기술력이 중앙아시아에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지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학과장

한국-중앙아시아, 앞으로의 핵심 의제는?

그동안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외교는 크게 양자 관계와 다자틀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중 다자외교는 2007년 시작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이 주축을 담당했다. 당시만 해도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는 다자틀은 본 포럼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들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정책에 이목을 집중했다. 외교부 차관급으로 시작한 '한-중앙아 협력 포럼'은 최근 장관급으로 격상, 정기적으로 한국과 중앙아시아 고위급 간 교류를 보장하고 다자협력을 추진하는 플랫폼으로 기능 중이다. 다만 중앙아시아 5개국 모두 대통령 권력이 절대적으로 막강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상 간 정례화된 포럼' 형태로 나아가는 것이 향후 한국-중앙아시아 간 협력 의제 선정과 정책 추진에서 효율성과 추진력을 담보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2024년 중앙아 3개국 순방 중 한국 및 중앙아 5개국 정상회담 제안이 전격 발표됐으며 내년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향후 한-중앙아 정상회담에서 무엇이 논의되어야 할까?

우선 '에너지 협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각국의 에너지 수출 확대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생의 구조가 계획 속에 반영돼야 협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및 그린 경제로의 전환' 관련 협력 방안도 2026 정상회담의 중요한 논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디지털 혁신을 국가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적 노하우와 경험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최근 한국으로 유입되는 중앙아시아 인구가 급격히 증가(2025년 기준 약 15만 명)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교육,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양 지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것 역시 장기적 관점에서 협력의 지속성과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유라시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지향하는 중견국 연대로

중앙아시아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한국을 자국의 '모델' 국가로 바라본다. 한국이 걸어간 길을 신뢰하고 그들도 따르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중앙아시아를 단순한 자원 공급처나 투자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국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에너지, 인프라, 기술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협력, 인적 교류, 문화적 교류까지 다방면에서 상호 이해 속에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글로벌 경제에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으로 보다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국제 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고 책임감 있는 일원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협력 속에서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는 앞으로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국지적 분쟁과 강대국 간 경쟁이 날로 심화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국과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평화와 공존을 지향하는 중견국 연대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

ODA 인포그래픽

한눈에 보는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5개국으로 이뤄져 있다. 코이카는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지속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다. 풍부한 천연자원까지 갖춰 산업 분야에서도 높은 미래 잠재력을 가진 중앙아시아. 그 놀라운 가능성의 대륙을 한눈에 살펴본다.

중앙아시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젊은 인구, 성장하는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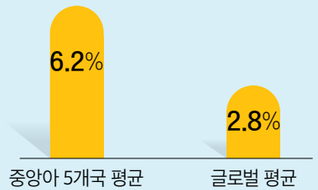


평균 연령
26.7세

총 인구 중 30세 이하 비율
50%
(0~14세: 30%, 15~30세: 20%)

2050년 예상 총 인구수
1억 명
2025년(7,600만 명) 대비
30% ↑

평균 GDP 성장률(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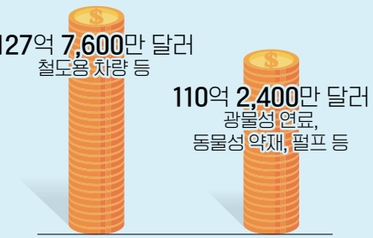
[자료: WB]

풍부한 천연자원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1위 우라늄 생산량	**4위** 천연가스 매장량	**8위** 금 생산량

[자료: WGC, WNA, Worldometer]

한국과의 관계(2021~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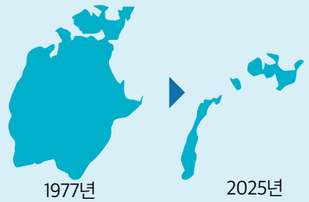
[자료: KITA, KOTRA]

중앙아시아 도전 과제

전자정부를 통한 디지털 전환

0.6937
2024년 5개국 평균 전자정부 개발지수
1위 **덴마크** 0.9847 / **4**위 **대한민국** 0.9679
[자료: UN]

환경(사막화)



세계 2위 내륙 호수인 아랄해 면적
지난 40년간 **80**% 감소
[자료: NASA]

코이카의 중앙아시아 지원 현황

중앙아시아 프로젝트



우즈베키스탄 질병 부담 경감을 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사업(2022~2026년/1,415만 달러)



타지키스탄 시설원예농업 현대화 기반 구축 사업 (2024~2029년/800만 달러)



키르기스스탄 국가 에너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앙 집중 AMI 시스템 구축 사업 (2023~2026년/1,050만 달러)



우즈베키스탄 우르겐치 직업훈련원 건립 및 직업훈련 제도 역량 공고화 지원 사업 (2020~2026 년/1,400만 달러)



키르기스스탄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2024~2027년/700만 달러)



연도별 지원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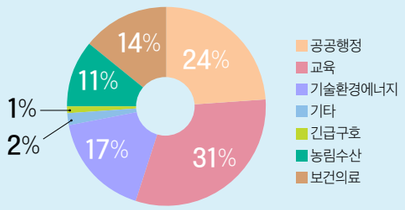
누적 총 지원금 약 **3억 9,000만 달러**

국가별 한국의 무상원조 규모 순위

(개발원조위원회 소속 30개 회원국 중, 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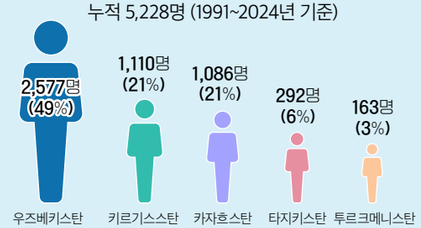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2위	**5**위	**5**위

지원 사업 분야별 비율



코이카 연수 사업 연수생 수

누적 5,228명 (1991~2024년 기준)





•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 중환자실에서 서울대학교 병원 수석 간호사(왼쪽)가 현지 간호사에게 간호 교육을 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질병 부담 경감을 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사업 외

의료 인프라 취약국에서 중앙아 의료 강국으로

2024년 한 해 동안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 있는 국립아동병원에서 약 5,000명의 아이들이 수술을 받았다. 심장 기형 수술이나 식도 폐쇄 수술 등 난이도가 매우 높은 수술들로, 대부분 생후 1년 미만 영아들이 대상이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 졸이던 가족들은 기쁨의 눈물을 터뜨렸다. 어린아이들이 새 생명을 얻은 감동 스토리는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보도되면서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이 사례가 특히 주목받은 이유는 중앙아시아의 열악한 보건의료 체계 때문이다. 실제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은 우즈베키스탄을 넘어 인구 7,600만 명이 넘는 중앙아시아 전체의 유일한 소아 전문 4차 병원이다.

중앙아시아 유일의 소아 전문 4차 병원

'고난이도 전문 병원'이라고 불리는 4차 병원은 장기이식이나 뇌종양, 심장기형 등 중증질환과 희귀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을 말한다. 극히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과 최첨단 의료 장비가 필요해 개발도상국에서는 성인 대상 4차 병원 설립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기에 소아 질병 전문 의료진과 장비가 추가로 필요한 소아 전문 4차 병원을 보유한 개발도상국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찾기 힘들다.

국제보건기구(WHO) 조사에 따르면, 매년 약 300만 명의 신생아가 선천적 질병을 갖고 태어나는데 이 중 절반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다. 개발도상국 아동 사망률은 선진국보다 12배나 높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한 국립아동병원은 존재 자체가 '기적'이라 불린다. 2020년 문을 열어 햇수로 개원 6년 차에 불과한 이 병원은 우즈베키스탄 최초로 단일 시설에서 광범위한 소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한 해 국립아동병원에서 수술받는 환아 수는 약 5,000명. 개원 이래 10만여 명의 소아 환자가 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한 우즈베키스탄 의료 관계자는 "이 병원이 생기기 전엔 해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극소수 부유층을 제외하곤 대부분 치료를 포기했다"면서 "평범한 아이들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건 기적"이라고 말했다.

병원 운영과 감염병 대응에 '물심양면'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의료 기적' 뒤엔 대한민국이 있었다. 중앙아시아의 유일한 아동병원을 대한민국이 만들었다는 건 우즈베키스탄 내에선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물론 정부 관계자가 유엔 총회, 정상회담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빼놓지 않고 국립아동병원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때문이다. 환아 가족이 직접 대한민국을 수신인으로 한 감사 편지를 보낸 적이 있을 정도다.

우즈베키스탄 국립아동병원은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전담 기관인 코이카와 유상 원조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힘을 합쳐 진행한 '종합 의료 시스템 지원'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 프로젝트에서 코이카는 병원의 핵심 기능인 '의료 능력 강화'를 도맡았다. ▲의료진 역량 강화 ▲병원 운영 프로토콜 정립 ▲임상 지침 시뮬레이션 교육센터 설립 등을 맡아 건립한 병원이 실제 고도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즈베키스탄 의사·간호사를 한국에 초청해 서울대학교 병원 등에서 교육받도록 하거나, 한국의 의료 전문가를 우즈베키스탄 현지로 파견하기도 했다. 감염병 등 특정 이슈가 있을 때는 화상 회의·미팅 플랫폼인 줌(ZOOM) 등을 활용한 원격 회의도 병행했다.

국립아동병원 운영만 도운 게 아니다. 코이카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우즈베키스탄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했다. 2020년부터 엔데믹으로 접어든 지금까



• 병원 실내 환경 유해 요인 평가를 실시하는 우즈베키스탄 의료진



• 2021년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코로나19 감염 환자 입원 치료 기관으로 지정된 우즈베키스탄 바이러스학연구소. 이 연구소를 지원한 코이카 직원들과 연구소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지 코이카는 감염병 직접 대응과 이후 감염병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의료진 태부족, 낙후된 장비… 한국이 싹 바꿨다

코이카가 우즈베키스탄을 돕기 위해 나선 건 구소련 시절의 인식이 남아 있는 보건의료 체계 때문이었다. 구소련 등 사회주의 체제에서 의료는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전 국민 무상 의료였다. 하지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신약과 의료기자재 도입이 늦어지면서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졌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타격은 클 수밖에 없었다. 감염병에 대응하느라 일반적인 보건의료 기능도 거의 올스톱됐다.

코이카는 감염병 대응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목표를 '현지 대응 역량 강화'로 잡았다. ▲역학 관리 시스템의 전산화 ▲연구·임상 분야 최신 장비 지원 ▲감염병 관리 및 대응 체계 컨설팅 ▲보건의료 인력 역량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감염병 대응을 담당하는 '바이러스학연구소' 등의 시스템을 개선하고 의료진 교육도 진행했다. 장비도 지원했다. 이 과정에는 국제백신연구소, 연세대학교 등 국내외 유수의 전문 기관도 참여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정부 역학 추적 시스템 조차 수기로 진행할 정도로 현지 대응 역량이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코이카는 전산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관련 인력을 교육해 역학 추적과 관리 능력을 높였다. 뒤이어 진단검사실에 현대화한 장비를 보급해 임상, 연구 능력도 향상시켰다. 쿠르바노프 보티르존 주라바예비치 위생역학복지공중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은 "코이카가 제공한 컨설팅과 연수를 통해 감염병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정립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엔데믹 이후에도 코이카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는 종식됐지만 추후 또 다른 감염병 등 보건의료 위기가 올수 있기 때문이다.

코이카 관계자는 "감염병은 국경이 없는 만큼 개발도상국의 위기가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 정부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중요 파트너인 우즈베키스탄과의 공동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Mini Interview 1

"전문가 교류로 감염병 대응 역량이 대폭 향상돼"



쿠르바노프 보티르존 주라바예비치
우즈베키스탄 위생역학복지공중보건위원회 부위원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즈베키스탄의 위생역학복지공중보건위원회(Sanitary-Epidemiological Welfare and Public Health Committee, 이하 SEWPHC) 부위원장인 쿠르바노프 보티르존 주라바예비치(Kurbanov Botirjon Jurabayevich)입니다. SEWPHC는 우즈베키스탄 보건부 산하 기관으로, 감염병을 포함한 질병 예방과 관리 및 그에 필요한 역학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교육 등 질병 대응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코이카와 함께 일할 당시엔 제가 프로젝트 매니저 역할도 수행했습니다.

우리 SEWPHC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국민 보건 증진을 위해 위생과 방역 관련 조치를 하는 일입니다. 보건위생 관련 법규를 만들고 관리하면서 공중보건 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이카와 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Q 코이카와 어떻게 협력했나요?

'우즈베키스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한국 대학교, 전문기관, 기업 등과 협력해 총체적인 대응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존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평가하고 우선순위 과제를 찾아내 새로운 감염병 대응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 이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키우기 위한 세미나, 교육 등을 진행했습니다. 관련 시스템을 모두 디지털화했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국제 인증도 한국의 도움과 교육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Q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관련 규제들이 빠르게 개선됐고, 비상사태를 대비한 준비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또 연구실험실의 효율성이 증대됐고 대응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가장 기대되는 성과 중 하나는 검역법 제정입니다. 감염병을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인 법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니까요. 현재 한국의 도움을 받아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규칙(IHR)에 맞는 국제 검역 협력 체계와 이를 받쳐줄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와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연수나 전문가들의 교육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Q 어떻게 도움을 받았나요?

검역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해 우즈베키스탄 상황에 맞는 법 제정 방향을 빠르게 설정했습니다. 한국 연수를 통해 현장을 확인한 의사결정권자들의 역량이 크게 높아져서 진행도 수월했고요. 글로벌 수준에 맞게 감염병 관리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다른 국제 인증 준비도 자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유대감이 아주 깊어졌습니다.

Q 유대감이요?

우호적인 태도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준 코이카 관계자와 한국 전문가들 덕분에 코이카와의 협업 전 과정에서 돈독한 관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코이카의 지원은 다른 나라나 국제기구의 지원과 달리 한정된 분야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총체적 접근이란 특장점이 있었어요. 실질적 도움을 받고 현지에서 지속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지니 당연히 고마움과 유대감이 커지죠.

Q 최근엔 감염병 관리를 위해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새로운 감염병이 나타나거나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이 있으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대응을 포함한 감염병 관리 역량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전자 분석 기술을 연구하거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Q 앞으로 있을 코이카와의 협력에 기대하는 부분이 있다면?

협력을 지속하면서 꾸준히 도움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관련 전문가들의 교류가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전문가들의 교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전문가 교류를 통해 만든 감염병 역학 관리 가이드라인은 우즈베키스탄의 감염병 대응 및 관리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좋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코이카의 지원이 이어지길 바라며 제안서를 쓰고 있습니다. 현장의 젊은 전문가들이 함께 기술과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교류와 지원, 나아가 연구 분야에서의 협력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Mini Interview 2

“체계적 지원, 코이카는 우리의 핵심 파트너”



에르킨 무사바예프
우즈베키스탄 바이러스학연구소장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건부 산하 우즈베키스탄 바이러스학연구소(Uzbekistan Research Institute of Virology,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바이러스학연구소는 2020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중증 코로나19 감염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참여해 이 시기에 하루 약 200건의 PCR 검사를 수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우즈베키스탄 최초의 코로나19 감염 환자 입원 치료 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Q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우즈베키스탄 현지 상황은 어땠나요?
현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진단 기기가 너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전문 지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 감염병 전문 병원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감염병 대응에 특화되지 않은 일반 병원까지 감염병 전문 병원 역할을 해야 했고, 그러다 보니 우즈베키스탄 전체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응급치료가 필요한 일반·만성 질환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Q 당시 코이카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나요?
2020~2021년 바이러스학연구소는 코이카와 함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감염병 예방·치료·진단 등 의료 시스템 전반을 구축했죠. 이때 코이카로부터 제공받은 첨단 장비와 기술, 의료진에 대한 교육이 너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가 전체의 팬데믹 상황 대응 방식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Q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당시 우즈베키스탄 의료계에서는 과도한 업무량으로 모든 임상 현장과 연구실에서 관련 의료 장비가 많이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코이카가 적시에 거대 규모의 장비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면, 우리 바이러스학연구소는 당시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운영 자체를 멈춰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이카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최신 진단과 연구 장비를 제공받은 덕분에 우리 연구소가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 획기적으로 물적, 기술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단언컨대 코이카의 지원은 우즈베키스탄이 팬데믹에 대응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Q 다른 국가들의 지원도 많았을 텐데, 코이카와의 협력이 특히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나요?
물론 다른 국가의 지원도 있었습니다만, 코이카의 지원이 유일하게 체계적 관점에서 제공된 근본적인 도움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게 뭔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코이카의 도움이 있어 우리 연구소가 임상과 연구 단계에서 꼭 필요한 기능을 셧다운하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Q 코이카로부터 받은 장비와 교육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장비는 2022년 완벽하게 현장에서 활용되기 시작했고, 그 덕분에 내시경과 영상의학과가 새로 설립됐습니다. 새로운 과가 생기면서 우리 연구소의 진단과 치료 역량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이카의 장비와 교육 덕분에 감염 환자들에 대한 진료와 연구 모두 획기적인 수준으로 높아진 셈입니다.

Q 코이카와의 협력 과정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내시경과 영상의학과가 새로 설립된 사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 과가 생기면서 감염병 환자 의료 서비스 수준이 아예 다른 단계로 도약했기 때문이죠. 현대적인 내시경·영상 진단 기법을 도입하고 연구실험실 역량을 높이면서 훨씬 정밀한 진단이 가능해졌어요. 예컨대 합병증을 인지하고 맞춤형 치료를 하는 식이죠. 이후 치료 성공률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임상적으로도 환자들의 예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Q 코이카와 대한민국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코이카는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여전히 코이카는 우리가 연구와 임상을 수행하고 차세대 전문가를 길러내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이 만들어 낸 세계적 수준의 의료 모범 사례를 배우면서 우즈베키스탄의 감염병 대응 역량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



• 코이카가 건립한 타슈켄트 직업훈련원을 졸업하고 누라그룹을 창업한 길마노브 안바르 대표. 왼쪽 하단 사진은 그의 직업훈련원 교육생 시절 모습이다.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

한국 손잡고 키운 기술 인재 꿈

우즈베키스탄 전력 분야 기업 누라그룹(Nura Group)의 길마노브 안바르(Gilmanov Anvar) 대표는 코이카가 지원한 타슈켄트 직업훈련원의 2015년 졸업생이다. 졸업 후 전력 인프라 구축 및 전압 장비 지원 기업을 창업한 그는 초기에 경영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업훈련원에서 배운 현대 기술과 경영 지식 덕분에 회사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다고 말한다. 현재 누라그룹은 직원 50명 이상의 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코이카 직업훈련원 졸업생들도 다수 종사하고 있다. 이제 길마노브 대표는 우즈베키스탄 청년들에게 꿈을 전하는 멘토로 역할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경제성장 견인하는 코이카 직업훈련원 사업

우즈베키스탄은 30세 미만 청년이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하는 ‘젊은 나라’다. 하지만 많은 청년이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실업률은 통계상 약 8%로 알려져 있지만, 현지 전문가들은 국가 통계의 취약성으로 20% 이상의 실업 인구가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실업 인구가 약 30%에 달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양질의 산업 인력을 양성해 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률 제고와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코이카가 2007년부터 20년 가까이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직업훈련원 건립 사업을 펼쳐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코이카는 2012년 타슈켄트를 시작으로 ▲사마르칸트(2016년) ▲샤흐리삽스(2018년) ▲페르가나(2021년)에 이어 현재 우르겐치에서 다섯 번째 직업훈련원(2025년 예정)을 건립 중이다. 직업훈련원은 지역별 산업과 고용 시장의 특성을 반영해 자동차, 전기, IT, 봉제, 미용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기업과의 협력으



• 코이카가 건립한 페르가나 직업훈련원에서 현지 교육생들이 전기 배선 교육을 받는 모습

로 산업 현장 경험도 제공하고 있다. 그 결과 직업훈련원에서 1만 1,000여 명 이상의 기술 인재를 양성했으며, 졸업생 전체 취업률은 92%, 고용기업 만족도는 97%에 달한다.

지역별 특색 담긴 직업훈련원,
우즈벡 대통령도 방문해 극찬

각 직업훈련원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타슈켄트 직업훈련원은 가장 첫 번째로 건립한 직업훈련원이고, 현재 우즈베키스탄 직업훈련 제도 개선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사마르칸트 직업훈련원은 코이카 시민사회협력 사업을 통해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교육 과정 최신화와 운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신설된 기계공학과와 컴퓨터그래픽과는 학내 인기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 샤흐리삽스 직업훈련원은 봉제, 미용 등 여성 고용에 특화한 교육 과정이 최초로 설계되어 실제 여성 및 장애인 교육생 비중이 계속 늘어나며 취약계층 포용이라는 성과도 거뒀다. 페르가나 직업훈련원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건립되었으며 현재 울산시와 현대중공업 협업으로 조선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025년 개원 예정인 우르겐치 직업훈련원은 인근에 있는 관광 지역인 히바를 고려해 호텔관광과도 교육 과정에 포함할 예정이다.



• 페르가나 직원훈련원에서 여성 교육생이 의류 제작 과정을 배우고 있다.

코이카의 직업훈련원 사업은 우즈베키스탄 정부, 국제사회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22년 페르가나 직업훈련원에 이어 지난 5월 2일 우르겐치 직업훈련원 건축 현장을 방문해 "양질의 직업훈련은 산업화와 국가 발전의 기초"라며 한국과 인재 양성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개발협력 우수 사례로 코이카 직업훈련원 사업을 소개했다.

직업훈련 다방면 지원해
세계적 우즈벡 기술 인재 양성

실제 코이카는 직업훈련원 건립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고용빈곤퇴치부와 협력해 현지 최초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도입하는 등 정책·제도적인 기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산업 인재들이 기술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3개 공과(자동차 정비, 일반 용접, 전기 설비 설치 및 수리) 분야에서 자격 검정시험 제도를 구축했으며, 올해 최초로 시험을 실시해 합격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말 자격증을 수여했다.

우즈베키스탄 1호 국가기술자격증을 받은 딜무라도브 라지즈벡(Dilmurodov Laziz-bek) 샤흐리삽스 직업훈련원 졸업생은 "시장 판매업에 종사했는데 코이카가 세워준 직업훈련원에서 전기·전자 기술을 배우고 샤흐리삽스 최고 전기 기술자의 꿈을 꾸게 됐다"라며 "국가기술자격증을 통해 우즈베키스탄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역량





• 지난 5~6월 코이카의 지원으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최초로 실시한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 현장

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꿈에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코이카는 향후 교육 양질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 양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교사연수센터 건립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신명섭 코이카 우즈베키스탄사무소장은 "코이카가 우즈베키스탄 전역에 건립한 직업훈련원이 기술 인재를 활발히 양성하고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다"라며 "우즈베키스탄 기술 인재가 현지 취창업을 넘어 한국을 포함한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전문 기술 인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Mini Interview

"평균 취업률 90%, 국가 경제에 긍정적 효과"



압둘라예프 하킴존
고용빈곤퇴치부 직업훈련국장

Q 코이카 직업훈련원 건립 전에 우즈베키스탄의 직업훈련은 어떤 방식이었나요?

직업훈련 기회 자체가 적었습니다. 특히 일반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은 직업훈련이 필요한데, 이런 환경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2011년까지 고용빈곤퇴치부 산하에 1,000명 이상의 교육생을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센터는 단 한 곳뿐이었고, 실제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 훈련은 0.5%에 불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코이카 직업훈련원이 건립되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1만 3,000명 이상의 숙련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었죠. 반대로 말하면, 3,700개가 넘는 기업이 좋은 인재를 얻었습니다.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직업훈련 시스템 자체가 우즈베키스탄에 도입됐으니, 단순한 취업률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코이카가 건립하고 우즈베키스탄 고용부가 운영을 인계받으면서 직업훈련원 자체에 대한 노하우 전수가 진행됐고, 그 결과 80개 이상의 단기 직업훈련센터가 만들어졌죠. 여기서 매년 10만 명 이상의 기술 인력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즈베키스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가히 엄청나다고 봅니다.

Q 현재 운영 중인 네 곳의 직업훈련원 졸업생들의 취업 등 성취도는 어떤가요?

4개 직업훈련원 평균 취업률이 약 90%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국으로 취업했거나 이후 돌아와 그 경험을 살려 현지에 자리 잡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고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데 성공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취업뿐 아니라 국제 기술 대회에서 수상한 성과도 많습니다. 2022년 유로스킬스, 2000 월드스킬스 특별 에디션, 2023 아부다비 월드스킬스 아시아 대회, 세계기능경기대회, 2024 중앙아시아 월드스킬스 친선대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수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Q 코이카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코이카 봉사단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현장 교육 관리자들이 입을 모아 해당 직업훈련원 건립과 운영 과정에 코이카 봉사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훌륭한 사업을 만들어 추진하고, 그 성과가 실제 현지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애써준 코이카 봉사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국이 이룬 엄청난 경제성장의 노하우를 우리나라에 전수해 줘서 고맙습니다. K



• 코이카가 타지키스탄에서 1차 전력 개발 사업으로 구축한 로밋 변전소

타지키스탄 전력 소외지역 전력망 구축 사업 외

중앙아시아에 '스마트 전력'이 흐른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다. 공장 기계를 돌리고 주민들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전력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중앙아시아는 전력 시장이 열악한 지역 중 하나다. 구소련 시절에 만든 노후화한 발전소와 송전 설비를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많고, 전력 관리에 필요한 기술력도 충분하지 않다. 한때는 중앙아시아 국가 간 전력망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지만 여러 나라가 구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각국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면서 전력 공급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모두 떨어진 상황이다. 코이카는 중앙아시아에서 전력 개발 협력을 꾸준히 이어가며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상국은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이다.

타지키스탄, 주민의 일상이 바뀌다

타지키스탄은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인 내륙국이다. 풍부한 수자원을 기반으로 수력발전이 전력 생산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다. 문제는 겨울철에 극심한 추위로 대부분의 수자원이 얼어붙어 전력 생산이 부족하며, 주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는 이마저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다. 산악지대는 전력 공급망 구축에 드는 비용이 특히 높아 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부담이 큰 상황이다.

코이카는 2017년부터 타지키스탄의 전력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017~2021년에는 약 600만 달러(약 85억 원)를 투입해 바흐다트시 로밋 지역 9개 마을에서 1차 전력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수도 두샨베에서 약 60㎞ 떨어진 이곳 마을들의 변전소와 송전선로는 대부분 구소련 시절에 건설돼 노후화한 상태였다.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은 매일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코이카는 신규 송전철탑 2기와 변전소 1기를 건설했으며, 기존 송전철탑을 보수하고 배전선로도 신축했다. 당시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양질의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면 로밋 지역 하천 유역을 관광 사업 육성 지구로 개발하고, 제조공장 같은 경쟁력 있는 산업 인프라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서였다. 코이카는 주민들이 전력을 스스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현지 전력 기술자들에게 역량 강화 교육과 송배전 기술 운용·노하우를 전하는 연수를 함께 진행했다.

1차 사업 결과, 마을에는 1년 내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한층 편리해졌다. 연료비 절감 효과로 겨울철 난방 이용이 늘었고 휴대전화 충전, TV 시청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됐다. 학교에서는 냉장고에 식재료 보관이 가능해져 급식을 시행하는 곳이 늘어났다. 가정에서는 세탁기와 냉장고, 오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면서 조리와 빨래 등 가사 부담이 줄었다. 이 밖에 전기를 이용하는 송어 양식장도 개업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는 효과도 거뒀다.

코이카는 1차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대상 마을을 확대한 2차 사업을 추진 중이다. 타지키스탄 바흐다트시 로밋 변전소에서 인근 14개 마을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총 65㎞ 길이의 10kV 배전선로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가파른 절벽과 골짜기를 넘어 약 5,000명의 산악지역 거주민들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는다. 늘어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야브로즈 지역에 변전소도 신축한다. 1차 사업을 통해 지은 로밋 변전소와 야브로즈 변전소를 연결하고, 단전 시에도 송전선을 이중화해 상시 전력 공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400만 달러(약 199억 원)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타지키스탄 전력 분야 정책 수립 관계자와 전력 설비 건설·운영 책임자 10명을 한국에 초청해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타지키스탄 현지에서 송전망, 배전망 회사 실무자와 변전소 근무자 25명을 대상으로 기술 연수를 진행한다. 신규로 전력 공급을 받을 지역의 마을 대표자 40명도 안전 연수 대상이다.



• 코이카가 1차 전력 개발 사업으로 타지키스탄에 구축한 로밋 변전소에서 코이카 직원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 코이카가 키르기스스탄에 구축한 CAS 운용센터(왼쪽)와 센터 앞 표지석

키르기스스탄, 2026년까지 '중앙 집중 관리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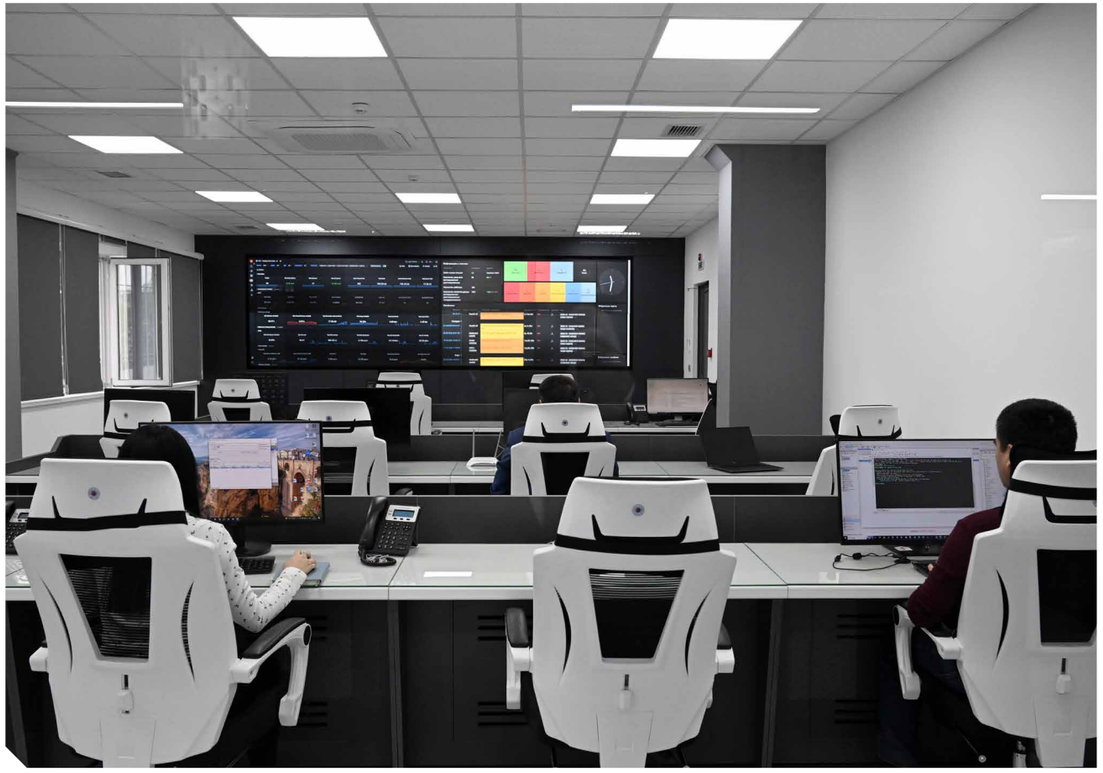
키르기스스탄도 대부분 전력 설비가 1960~1980년대에 설치돼 시설이 노후화한 상황이었다. 고장이 잦고 전력 손실이 컸으며 생산되는 전력의 품질도 낮은 문제가 있었다. 총 전력 중 손실량은 최대 20%로, 이는 선진국(5%)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특히 전력 관리 시스템의 부재는 전력 활용의 비효율을 불렀다. 전기 사용량 파악을 위해 사람이 일일이 미터기 계측값을 확인해야 했고, 전력 사용량을 파악하는 통합된 시스템도 갖춰지지 않아 데이터 확보와 관리가 어려웠다.

이에 코이카는 2023년 말부터 키르기스스탄의 전체 가정용 전력과 상업용 전력을 관리할 수 있는 '중앙 집중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총 1,050만 달러(약 149억 2,600만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 KT도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5월 키르기스스탄 전역에 걸쳐 최대 150만 대의 스마트 미터기를 수용할 수 있는 중앙 집중 AMI 시스템이 완공돼 모습을 드러냈다. 신규 도입되는 미터기뿐 아니라 기존 사용 중인 다양한 기종의 미터기를 통합 연동해 배전 구간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2026년 말까지 사업단은 총 1만 779대의 지능형 미터기를 키르기스스탄 정부에 제공하고,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자체 운용할 수 있도록 'ICT 역량 강화 교육'을 본격 실시할 계획이다. 1년간은 중앙 집중 AMI 시스템을 공동 운용하면서 시스템 점검, 장애 대응 사례에 대한 실무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운용·센터 설비와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 장비 등 IT 시스템에 대해 2년간 유지보수도 지원한다. 코이카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키르기스스탄의 '2018~2040년 국가 개발 전략' 중 에너지 분야의 효율화와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전력 이용에 대한 국민의 편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국가 에너지 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앙 집중 지능형 원격 검침 시스템 AMI 구축 사업



• 키르기스스탄 최초 정부 통합 데이터 센터인 G-Cloud 센터 모니터링룸. 코이카가 정보화가 비교적 늦은 키르기스스탄에 전자정부를 도입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 행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및 역량 개발 사업

중앙아에 꽃피운 '한국 스타일' 전자정부

키르기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전자정부 도입이 늦은 나라 중 하나다. 한국에선 클릭 몇 번이면 가능한 서류 업무를 이곳에선 발급 기관을 일일이 다니며 처리해야 하고, 중간에 행여 착오라도 있으면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발급해야 했다.

코이카 키르기스스탄사무소는 현지 주민들이 겪는 이런 어려움을 포착하고, 전자정부를 넘어 디지털 정부를 향해 가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과 효율적인 행정 처리 시스템을 이곳에 도입하면 좋을 거라 확신했다.

전자정부 시대 맞이한 키르기스스탄

2020~2025년 펼친 '키르기스스탄 행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및 역량 개발 사업'은 코이카 키르기스스탄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 키르기스스탄 정부도 행정 처리와 관련한 국민들의 불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이카는 전자정부 도입의 필요성을 쉽게 납득시킬 수 있었다. 코이카는 전자민원 서비스를 개발함과 동시에 사업 일부를 세계은행 및 키르기스스탄 현지 정부와 협업해 진행했다.

키르기스스탄 행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및 역량 개발 사업은 한마디로 키르기스스탄의 전자정부 구축 사업이다. 아날로그 방식으로 진행되던 키르기스스탄의 행정 처리를 한국과 같은 디지털화 방식으로 효율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실제 이 사업은 키르기스스탄 국민이 다양한 행정 업무를 효율적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행정 체계부터 전자 시스템 구축, 공무원의 업무 방식 개선까지 총체적인 개혁을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전자정부 구축은 단순히 전자 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태도 자체를 바꾸는 일이었다.

또 지속적으로 관계 부처 공무원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어야 했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도 끊기지 않는 최고 수준의 서버 구축 역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표경주 코이카 키르기스스탄사무소 부소장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해내겠다는 의지로 코이카 사무소 측과 키르기스스탄 정부 관계자가 마지막까지 뜻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코이카 키르기스스탄사무소는 해당 사업을 현지 공무원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업 설계 과정부터 도입까지 참여하도록 세심하게 힘썼다. 한국 전문가들이 모든 과정을 도맡아 하면 진행 속도는 빠르지만 이후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작업시간이 몇 배 늘어나더라도 모든 자리에 통역사를 배석해서 현지 직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꼼꼼하게 전달하는 과정을 잊지 않았다.

정부 기관 사이의 불협화음을 극복하는 것도 큰 숙제였다.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로 활용하기로 한 건물을 갑자기 다른 부처에서 쓴다고 통보해 사업이 수차례 지연됐다. 또 보건부, 노동사회개발부 등 각기 다른 정부부처에 산재한 정보들을 하나의 시스템에 모으는 일도 오랜 시간이 걸린 지난한 작업이었다.

주민 편의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도 해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직격탄까지 맞았지만 코이카 관계자들은 사업 결과에 대해 "뿌듯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번 사업으로 키르기스스탄 국민들에게 준 편익이 얼마나 큰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주소 변경, 여권 교체, 주민등록부(호적부) 변경, 운전면허 및 여권 등록 등 서비스는 90% 이상 소요 시간이 감축됐다. 기존엔 모든 행정 서비스가 담당 관청을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고, 무슨 업무를 보더라도 최소 1시간 이상은 걸렸다. 관련 서류를 추가로 발급하려면 다른 관공서에 가서 또다시 1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겪는 어려움이 컸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 일부 서비스도 서버 반응이 너무 느려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런 불편함도 이번 사업으로 해소했다. 서버 튜닝까지 제공해 전자민원 진행 시간을 10분의 1로 단축한 것이다.

코이카가 또 하나 기대하는 것은 올해 가을쯤 서비스 예정인 복지 및 지원 사업 관련 신청 창구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족에 제공되는 매월 생계 지원이나 사회 수당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표 부소장은 "나라에서 제공하는 복지제도가 있는데도 행정 처리가 번거롭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다 보니 신청 자체를 못 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많다"면서 "향후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신청이 어려워서 복지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코이카 키르기스스탄사무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을 모르거나 알아도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용 방법을 안내하는 현지어 홍보 영상도 제작했다.

코이카 키르기스스탄사무소 관계자들은 사업 성공의 비결을 '끝없는 현지와의 소통'과 오랜 기간 지속해 온 한국 정부와 코이카의 지원 사업, 즉 '씨앗 뿌리기'에 있다고 공을 돌렸다. 표 부소장은 "코이카가 진행했던 과거 사업에 대한 현지 관계자들의 긍정적 평가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과 키르기스스탄의 공동 번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코이카가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진행한 키르기스스탄 고위급 초청연수

키르기스스탄 통합적 농촌개발 사업

‘기술 교육부터 자치까지’ 스스로 성장하는 마을 만들기

유치원이 없던 키르기스스탄 남부의 한 마을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을 여성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다목적 여성센터가 문을 열면서다. 이곳은 마을 아이들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마을 여성 및 주민들이 여가시간 및 경제활동 등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텃밭에서 기른 채소로 가족들의 식탁을 채우고, 남은 수확물은 창고에 저장한 뒤 시장에 내다 판다. 다목적 여성센터를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는 마을 주민들의 생활을 눈에 띄게 바꾸고 있다.

코이카는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와 함께 키르기스스탄 남부 오시(Osh) 지역과 바트켄(Batken) 지역에 있는 30개 농촌 마을의 주민 8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통합적 농촌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국제개발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인프라 지원이나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속적 교육, 생계, 젠더, 거버넌스 등 다방면에 걸쳐 주민의 삶 전체를 바꾸는 ‘통합적 접근’이 핵심이다. 현지 주민과 정부, 국제기구, 지역 NGO가 협력한 이번 사업을 위해 2021~2025년 약 100억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 코이카의 농업기술 교육과 스마트 관개 설비 설치를 통해 사과 생산성을 높인 키르기스스탄 과수 농가 주민

지역 인프라 개선, 주민 스스로 성장하도록 돕는 통합 전략

이번 사업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부문 간 연결이다. 단순히 시설 개선이나 기술 교육을 넘어 마을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려면 여성 권리, 지역 인프라, 기술 교육, 거버넌스 등 다양한 요소가 얽혀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를 테면, 마을 주민이 식수 문제를 겪고 있다면 수도관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생 교육을 진행하면서 여성 리더가 주도하는 모니터링 그룹을 운영해 주민들이 수도 시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기반으로 가정의 텃밭에서 고부가가치 채소를 재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키친가든 교육을 하고, 생산물을 공동 저장해 판매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했다. 각 마을 특성에 따라 작목, 유통 경로, 기반시설도 모두 달라진다. 이를 위해 사업 초기부터 주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전문가 컨설팅, 일대일 맞춤형 액션 플랜 등을 수립해 추진했다.

사업 대상지인 30개 마을에서는 기초생활 인프라와 농축산 저장·유통 인프라 등을 구축하는 동시에 다목적 여성센터를 조성했다. 다목적 여성센터는 유치원과 소득 활동 장소, 공동체 회의 장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아동 돌봄과 여성 역량 강화, 소득 창출 등을 돕는 거점 역할을 하는 셈이다. 한 마을 주민은 “처음에는 돌봄 공간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마을 여성들이 다목적 여성센터에서 미래를 계획한다”고 말했다.

소득 증대 부문에서도 차별화된 접근이 이뤄졌다. 코이카는 농가 1,200여 가구를 품목별 생산 그룹으로 조직하고, 저장·유통 시설을 별도로 구축해 판매 경쟁력을 높였다. 이와 함께 3,790가구가 참여하는 소액 대출 리볼빙 펀드도 운용하면서 농가의 자립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이 이끌고 정부가 돕는 ‘거버넌스 실험’

사업의 또 다른 차별점은 주민 참여와 정부 협력이라는 운영 체계다. 코이카는 사업 초기 각 마을에 마을개발위원회를 조직하고, 마을 스스로 개발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마을 사업 선정, 유지 보수, 외부 자원 조달까지 주도하는 실질적인 실행 조직으로 자리 잡았다.

덕분에 마을 주민들도 의사결정의 주체로 나서게 됐다. 지금까지 600여 명의 마을 리더가 교육을 수료했고, 여성 농민그룹 30개가 만들어졌다. 이들은 공동 소득 활동, 마을회의 운영 등을 주도하고 있다.



• 코이카가 키르기스스탄 통합적 농촌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현지에서 문을 연 다목적 여성센터. 이곳에서는 아이들을 돌봐줄 뿐만 아니라 지역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소득 활동도 지원한다.



• 농업 정책 및 관련 실무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 한국에 온 키르기스스탄 공무원들

지방 정부와의 협력도 이뤄졌다. 코이카는 한국에 키르기스스탄 공무원 20명을 초청해 연수와 현지 실무 교육을 진행했고, 현지 농업부와 공동으로 농촌개발 조정위원회·실행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방향과 실행을 조율했다.

통합적 농촌개발 사업의 대표 성과 중 하나는 ‘디지털 농촌지도 플랫폼’ 구축이다. 기존의 마을 단위 농업 정보 전달체계가 부족한 점에 착안해 키르기스스탄 농업부를 비롯해 현지 IT 기업과 협력해 농촌지도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이 플랫폼을 통해 농가에서는 기후 정보, 농업기술, 병해충 예보 등 농사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키르기스스탄 정부의 농업 행정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생산·가공·유통·판매를 하나로 엮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혁신적 요소와 협업 전략이 시너지를 발휘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전략이 ‘과수 클러스터’ 조성이다. 사업 대상 지역은 사과, 살구, 체리 등을 재배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가공·저장·유통 구조와 시설이 부족해 생산물의 상품 가치가 낮았다. 코이카는 생산·가공·유통·판매를 하나의 흐름으로 엮는 클러스터 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농가 대상 농업기술 교육을 하고 스마트 관개 시설을 설치했다. 마을 단위의 냉장저장고와 물류시설도 함께 구축했다. 클러스터 전략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참여해 경제성 분석과 정책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사업 종료 후에도 지역 단위의 생산·판매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 기반을 설계하는 데 무게를 뒀다.

이번 사업의 결과 사과, 라즈베리, 체리, 살구, 감자 등의 생산성이 평균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정부와는 과수 클러스터 마스터 플랜을 구축하고 농촌개발 정책에 대한 역량도 강화했다. 사업 종료 시점에는 키르기스스탄 개발 소외 지역의 빈곤율을 기존보다 약 5% 감소한 77.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통합적 농촌개발 사업에 참여한 조시(Zhoosh)와 총알라이(Chon Alai) 두 개 면이 2024년 ‘키르기스스탄 최고의 면(Best Aiyl Okmotu)’ 콘테스트에서 각각 1등과 3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콘테스트는 키르기스스탄 정부가 마을의 자립적 발전 수준, 공공행정 역량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해 매년 전국의 우수 면을 선정하는 행사다. 조시는 전국 235개 면 가운데 높은 점수를 받아 1등을 차지했고, 총알라이는 전국 고립 지역 및 개발 소외 지역 중 3위를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다. 다음은 조시 면장과 총알라이 면장의 인터뷰 내용이다.

Mini Interview 1

“주민 스스로 마을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 생겨”



발티바에브 아이벡 주두에비치(Baltybaev Aibek Zudуevich) 조시 면장

Q 통합적 농촌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업 이후 우리 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식수 공급이 늘 문제였던 2개 마을은 사업 이후 식수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았고, 보건소 설립으로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도 누리고 있습니다. 우유 가공 공장 신축과 함께 펀드를 이용해 소농들이 많은 소를 구입하면서 농가 소득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을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면 주민들과 그들이 선출한 리더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Q 통합적 농촌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경험이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사업 이후 지역사회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 주민들은 우리가 노력하면 우리 면과 마을을 얼마든지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도시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살고 있는 마을에서 누리게 되면서 주민들은 마을 일에 더 적극적으로 동참했고, 마을을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얻은 우리 면의 가장 큰 수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Q 다목적 여성센터와 마을 기초 인프라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 변화가 개인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다목적 여성센터가 생기면서 마을 여성들이 자주 모이게 되었고, 서로 협력하는 사례도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또 다목적 여성센터에 있는 방과후 학교를 통해 영어나 러시아어를 공부하는 학생들도 생겼고, 일부 여성은 영농 교육을 통해 가정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의 소득 증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Q 2024년 키르기스스탄 최고의 면 콘테스트에서 1등을 수상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키르기스스탄 최고의 면 콘테스트는 우수 지방정부를 독려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상 기준으로는 기초 서비스 공급부터 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외부 투자 유치까지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면이 전체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사회와 마을 리더들의 단합된 노력, 그리고 더 나은 생활 환경과 장기적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식수 문제 해결과 보건소 신축을 지원해 준 코이카와 굿네이버스의 역할도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Q 농촌개발을 지원하고 파트너로 함께해 온 코이카와 굿네이버스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면을 위해 물심양면 지원해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수도관 묻기 품앗이를 하는 키르기스스탄 조시면 지역 주민들

Mini Interview 2

“여성들, 더 이상 돈 벌러 마을 떠나지 않아”



클로브 아나르벡 아브디라마노비치(Kulov Anarbek Abdyramanovich) 총알라이 면장

Q 통합적 농촌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와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 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총알라이는 상당히 척박한 지역으로 그전까지는 주민들 삶의 질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유치원을 지어 아이들의 교육 수준을 높였고, 한 마을에는 5㎞에 달하는 농수로를 만들어 농업 효율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또 고질적인 식수 문제도 해결하고 마을 곳곳에 전봇대를 설치해 전기 공급도 한층 안정됐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각 마을의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훌륭한 리더를 발굴했고, 선출된 리더들은 헌신적으로 마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Q 통합적 농촌개발 사업에 참여하면서 얻은 경험이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총알라이의 주 작물은 씨감자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협동조합이 결성돼 씨감자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협동조합을 통해 타 지역의 조생감자 재배 협동조합과 교류하고 씨감자의 판로도 넓혔습니다. 앞으로도 씨감자 사업의 발전으로 주민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리라 생각합니다.

Q 다목적 여성센터와 마을 기초 인프라 사업을 통해 여성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했고, 그 변화가 개인과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통합적 농촌개발 사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개발위원회와 다목적 여성센터의 주인공은 여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마을개발위원회의 80%가 여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 여성들이 취업을 하거나 교육을 받으려면 도시로 떠나야 했지만, 이제는 다목적 여성센터에서 교육받고 일할 수 있어 마을을 떠나지 않습니다. 일례로 이 사업으로 만들어진 키친가든 그룹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은 온실에서 유기농 채소를 재배하며 가정과 마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Q 2024년 키르기스스탄 최고의 면 콘테스트에서 3등을 수상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수상 평가 항목으로 투자 수준, 교육의 질, 환경 향상, 인프라 개발 등이 있는데 코이카와 굿네이버스의 지원이 없었다면 아마 수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식수 및 전기 공급 개선, 유치원과 다목적 여성센터 신축, 씨감자 저장고 건축 등 마을의 큰 변화에 코이카와 굿네이버스의 지원이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씨감자 저장고에서는 마을 농민들이 경작, 저장 및 보관, 마케팅 등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농촌개발을 지원하고 파트너로 함께해 온 코이카와 굿네이버스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코이카와 굿네이버스에 진심으로 큰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마을의 미래까지 내다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K



• 키르기스스탄 총알라이면 다목적 여성센터에서 함께 공부하는 마을 여성들



• 우즈베키스탄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적응 인식을 넓히기 위해 코이카가 진행한 교사 교육을 수료한 현지 교사들

GGGI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공화국의 지역사회 주도
친환경 재건을 통한 아랄해 위기대응 사업 외

‘민간 투자 유치’ 우즈벡 지원 사업이 모범 사례가 된 까닭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기후 재앙’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앙아시아도 이러한 기후위기 직격탄을 맞은 지역 중에 하나다. 가장 큰 화두는 ‘물’이다. 한때 세계에서 4번째로 큰 호수로 불렸던 아랄해가 2000년대 초 90% 이상 사막으로 변하며 중앙아시아는 심각한 물 부족 문제를 안았다. 아랄해의 물이 고갈되자 대부분 내륙 국가인 중앙아시아는 일상 및 산업에 필요한 물을 대부분 산에서 내려오는 강물로 충당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물 부족 문제로 가장 큰 피해를 당한 나라다. 우즈베키스탄의 가장 큰 강이자 대표적 수자원 공급처인 시르다리야강과 아무다리야강의 유량이 최대 20%가량 감소하자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물 문제 해결을 위한 수자원 관리 시스템 도입과 피해 농업인을 위한 금융 대책 등을 담은 긴급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농작물 수출이 국가 주 수입원인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 수자원 급감은 경제의 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 부족으로 인구도 유출됐다. 아랄해 인근 지역에 살던 많은 우즈베키스탄 농민들이 2015년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한 것이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전체를 관통하며 여러 국가의 수자원이 돼주는 아무다리야강과 시르다리야강 상류에 있는 주변 국가들과 댐 건설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 우즈베키스탄 농민들이 드립관개(식물의 뿌리 근처에만 물방울을 떨어뜨려 물 낭비를 줄이는 관개 방법) 교육을 받고 있다.

기후 대응 비즈니스 역량 강화하고
1.4조 원 규모 자금 마중물까지

우리나라는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 중 하나다. 2023년 우리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일본과 프랑스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양자 원조를 제공한 주요 공여국이다. 이는 문화와 경제, 역사적 관계와도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에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튀르키예에 이어 전체 교역액 5위 국가로, 자동차나 섬유 등 다양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다. 여기에 17만 여 명 규모 고려인 커뮤니티의 존재와 K-문화 콘텐츠 유행으로 현지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도 높다.

코이카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야 역시 ‘기후위기’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약 80억 원 규모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GGGI 우즈베키스탄 카라칼팍스탄공화국의 지역사회 주도 친환경 재건을 통한 아랄해 위기대응 사업(아랄해 GRIP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국이 주도해 설립한 최초의 국제기구인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Global Green Growth Institute)와 코이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펼친 첫 국제기구 협력 사업이다.

> 코이카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기후위기’이다. 약 80억 원 규모로 2021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아랄해 GRIP 사업’이 대표적이다

코이카는 이 사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서부의 자치공화국인 카라칼팍스탄 내 아랄해 인접 4개 지역인 케겔리, 보자토우, 침바이, 카라우작 지역에 ▲기후 스마트 농업 정책 수립 ▲소농민들의 기후 회복 역량 개발 ▲기후 적응 농업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역 기업·농민들의 기후 회복을 위한 금융 접근성 개선 등의 지원 사업을 펼쳤다. 이들 지역은 1950년대까지 휴양지이자 풍요로운 어촌 마을이었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물이 급격히 줄면서 주민들이 생계수단을 잃어 떠나거나 가난에 시달렸다. 코이카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며 “재난에 대한 지역사회 회복력을 구축해 지역의 문화, 사회, 경제적인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게 목표”였다고 밝혔다.



• 한국이 주도해 설립한 글로벌녹색성장기구의 미세농작물 관리 교육에 참가한 우즈베키스탄 장애 여성들

특히 '지역 기업·농민들의 기후 회복을 위한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GGGI가 우즈베키스탄의 상업은행인 SQB(Sanoat Qurilish Bank), Agrobank를 대상으로 각각 약 7,840억 원 규모의 지속가능채권(친환경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부문에 한해 발행 대금을 사용하는 채권)과 약 6,200억 원 규모의 녹색채권(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채권) 발행에 성공한 점은 전통적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치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트키르 주만모브 우즈베키스탄 생태환경보호기후변화부 사무국장은 "해당 사업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희망이 될 것"이라며 "공여국 정부, 국제기구가 현지 상업은행과 협력해 더 큰 시너지를 만든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극찬했다.

지역 주민 '친환경·기후 적응 비즈니스' 지원

코이카는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 기후위기 관련 지원 사업을 이어간다. 내년부터 '우즈베키스탄 파리협정 이행 강화 및 제6조 기반 한-우 협력 지원 사업(이하 파리협정 이행 강화 한-우 협력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또 2023년부터 시작한 '타슈켄트주 스마트 기술 기반 산림 도시녹화 역량 강화 사업(이하 산림 도시녹화 역량 강화 사업)'도 한창 추진 중이다.

파리협정 이행 강화 한-우 협력 지원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국가 간 협약을 통해 국제사회가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시장적 접근법을 활용해 감축 비용을 줄인다는 파리기후변화협정 제6조 내용에 기반한다. 이 사업은 100억 원 규모로 GGGI와 협력해 우즈베키스탄의 파리협정 이행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사업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관련 사업 발굴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산림 도시녹화 역량 강화 사업의 목표는 ICT 기반의 스마트 수목 생산기술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산림 및 도시녹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나아가 장기적인 우즈베키스탄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워내는 데 있다. 녹색 농업 분야 농민 대상 교육도 진행하고, 우즈베키스탄 산림청과 국유 양묘장 등 국가 기관과 협력해 지속 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농업 비즈니스도 키워낼 계획이다.

코이카 측은 "기후위기로 황폐해진 우즈베키스탄의 산림녹화를 진행하면서 현지 자생적인 녹색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최첨단 산림녹화 기술을 전수하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소외돼 온 지역 여성들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게 특장점이다.

> 코이카는 기후위기로 황폐해진 우즈베키스탄의 산림녹화를 진행하면서 녹색 비즈니스가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펼칠 계획이다

직접적인 산림 황폐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향후 지역 내에서 자생적인 녹색 비즈니스 성장과 지역 소외계층의 자립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닦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이카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은 성장 잠재력이 크고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나라"라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들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과 공동 번영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코이카는 기후위기로 인한 우즈베키스탄의 수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랄해 인접 지역에서 다양한 ODA 사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은 아랄해 사업지를 알리는 표지판







• (왼쪽부터) 아브디에바 이로다 우즈베키스탄 국립외대 한국어학과장, 무비나 283번 공립학교 압두라히모바 학생, 김하영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역 한국 문화 인식 제고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

국립외대 봉사단 파견 30년 언어를 넘어 마음을 잇다

코이카와 우즈베키스탄 국립외국어대학교(이하 국립외대)의 인연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이카는 1996년 국립외대에 한국어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파견하기 시작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학생들은 매년 한국인 봉사자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인과 소통하며 언어 능력을 키울 수 있었다. 이 밖에도 코이카는 한국어 교육 시설과 교수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며 학문적 교류의 기회까지 확장하고 있다. 아브디에바 이로다 국립외대 한국어학과장은 "코이카의 봉사단 파견은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대학과 학과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됐다"고 말한다.

코이카 봉사단은 구체적으로 우즈베키스탄의 한국어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꿨을까. 또 학생들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브디에바 이로다 국립외대 한국어학과장과 김하영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원, 283번 공립학교의 무비나 압두라히모바 학생을 만났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의 한국 전문가를 기르다"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아브디에바 이로다 국립외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문화 교류를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코이카와 협력해 우리 대학과 학과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무비나 압두라히모바 283번 공립학교 8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한국 문화와 언어, 교육 시스템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에서 온 봉사단원들과 교류하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올해 학교에서 진행하는 코이카 수업에 참여하고 있어요.

김하영 한국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탈북민 대안학교 레슨 봉사를 하면서 봉사활동이 주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해외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생겨서 이번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에 신청서를 냈습니다. 코이카의 영프로페셔널(YP) 인턴십에도 참여한 적이 있는데, 당시 커뮤니케이션팀에서의 업무 경험 덕분에 '이 업무라면 나도 기여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겨 디지털미디어 분야에 지원했어요.

Q 국립외대 한국어학과는 어떤 곳인가요?

아브디에바 이로다 한국어 문법, 어휘, 발음 같은 언어학적 지식뿐 아니라 한국의 역사, 사회, 문학, 예술 등 문화적 배경까지 폭넓게 교육하는 학과입니다. 우리 과의 많은 학생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거나 통·번역, 언론, 관광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어요. 한국의 대학으로 유학 가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교사로 일하기도 합니다. 코이카 봉사단원들과의 교류가 학생들의 진로 설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Q 코이카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아브디에바 이로다 한국어 회화, 발음 교정,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강의를 하기도 하고 K-POP 댄스, 부채춤, 사물놀이, 태권도 등 문화 수업도 합니다. 동아리도 다양하게 운영하죠. 모든 프로그램에서 한국인의 실제 문화와 언어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항상 큰 호응을 얻고 있어요.

김하영 수업 보조교사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 전통놀이인 공기놀이 시범을 보였어요. 공깃돌을 잡고 한 단계씩 기술에 성공할 때마다 아이들이 환호하고 손뼉을 치며 신기해하던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공기놀이를 하며 이런 뿌듯함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죠.(웃음)

Q 교육 받는 입장에서 인상 깊었던 점은?

무비나 압두라히모바 한국어 교사들과 함께 보낸 시간은 마치 완전히 다른 세계로 온 것처럼 특별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됐죠. 이제 간단한 문장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서 온라인에서 한국어 동영상과 웹사이트를 훨씬 재미있게 즐길 수 있어요.

아브디에바 이로다 코이카 프로그램 운영 취지에 맞는 좋은 예입니다(웃음). 우리 학과의 목표는 '현장 중심의 글로벌 한국어 전문가 양성'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코이카 봉사자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실용적이고 살아 있는 한국어 경험을 제공하고, 문화적 자신감과 국제적 감각을 키우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어 더 널리 알리는 게 꿈"

Q 올해로 교류를 시작한 지 30주년인데 그동안 무엇이 달라졌나요?

아브디에바 이로다 코이카와의 교류는 곧 우리 대학과 학과의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2007년에는 '한국 문화의 방(Korea Corner)'이 코이카 지원으로 대학 안에 설립됐어요. 2012년에는 한국어 연구실이 만들어



• 2014년 한국 문화와 한국어를 알리기 위해 열린 '한국어 어울림한마당 행사'에 참가한 우즈베키스탄 여학생들



• 2014년 코이카가 파견한 한국 봉사단원에게 태권도를 배운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태권도 시범을 보이고 있다.

졌고, 이듬해에는 'Oson 한국어' 교재를 공동 집필해 출판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민화 번역서도 함께 출간했어요. 코이카는 시설과 장비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실과 컴퓨터실, 저널리즘 학부생을 위한 동시통역실도 코이카 지원으로 설치됐죠. 무엇보다 가장 큰 의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에서 나왔습니다.

Q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아브디에바 이로다 한국에서 오는 봉사단원들을 맞이하기만 하다가, 7년 전부터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개설돼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받고 있어요. 교수 간의 교류도 활발해요. 우리 학과 교수들은 매년 한국에 연수를 갑니다. 2018년에는 저널리즘 학부 교수들이 코이카 지원을 받아 한국에 다녀왔어요.

김하영 봉사자로서도 이번 방문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봉사라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심이 전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밀도 있게 살아낸 시간이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설렘과 걱정이 공존했지만 다양한 사람들과 부딪히고 함께 배우면서 점차 나만의 속도로 성장해 나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Q 현지 청년들을 위해 추가했으면 하는 지원이 있다면?

김하영 많은 청년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진로 교육, 커뮤니케이션 훈련, 멘토링 등 실제 진로 설정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에 포함되면 좋겠어요.

Q 앞으로 기대하는 교류의 방향은?

무비나 압두라히모바 앞으로 한국어에 더 능통해지면 아이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널리 전파하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되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김하영 이전에는 국제개발이라는 분야가 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너무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활동을 통해 작고 일상적인 실천도 국제개발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감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국제개발의 시작이라는 걸 새롭게 배웠습니다. 더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국의 청년들이 나와 같은 의미 있는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아브디에바 이로다 언어와 문화는 국경을 넘는 다리입니다. 코이카는 그 다리를 가장 튼튼하게 놓아준 기관이죠. 앞으로 코이카와의 협력이 공동 교재 개발, 디지털 콘텐츠 제작, 교수와 학생 교환 프로그램 등 지속 가능하고 전문적인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겠어요.

특히 한국문화관 건립과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우리 대학과 학과의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어 교육에서의 교류가 문화,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K



• 2014년 코이카가 파견한 한국 봉사단원(오른쪽 첫 번째)이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 코이카가 주관한 글로벌 연수 사업 '씨앗'에 참가한 타지키스탄의 피르다우시 파루흐조드(왼쪽)와 마스루르 바로토프. 이들은 연수 후 귀국해 타지키스탄 발전에 기여하며 한국과 자국을 잇는 가교 역할도 하고 있다.

글로벌 연수 사업 연수생과의 만남

타지키스탄 미래 이끌 '씨앗'이 되리

'씨앗'. 아직은 미약하나 장차 큰 나무로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다. 코이카는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씨앗을 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코이카의 글로벌 연수 사업 '씨앗(CIAT, Capacity Improvement & Advancement for Tomorrow)'은 코이카가 1991년부터 개발도상국 공무원, 기술 인력, 연구원 등 해당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코이카 대표 개발협력 사업이다. 지난해까지 누적 9만여 명의 연수생을 배출해 낸 이 사업은 2~3주 내의 단기 연수부터 석사 및 박사 학위 취득을 지원하는 학위 연수까지 다양하다. 연수생 대부분은 프로그램이 끝난 뒤 귀국해 자국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과 자국을 잇는 가교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한국과 깊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타지키스탄에서도 매년 뛰어난 인재가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우수한 성적으로 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해 타지키스탄 발전에 애쓰고 있는 두 명의 졸업생을 만나 본다.

Interview 1



피르다우시 파루흐조드

- 현 타지키스탄 경제통상부 통상정책부 최고전문관
- 취득 석사학위: 카이스트 사회적기업가 MBA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피르다우시 파루흐조드(Firdavsi Farukhzod)라고 합니다. 서른세 살이며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타지키스탄 경제통상부의 통상정책부서 최고전문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Q 한국에서 공부한 학교는 어디였나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사회적기업가 과정 MBA를 취득했습니다. 당시 제가 맡은 업무와도 관련이 있고 제 학문적 배경과도 잘 맞는 분야라 선택했습니다. 공부하며 제 업무에 바로 적용 가능한 여러 지식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 한국에 오기 전에는 어떤 업무를 담당했나요?

지금과 같은 통상정책부서에서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관련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주로 사회적 가치가 경제 정책에 고려되는 책임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타지키스탄 통상 정책에 유엔의 SDGs 이니셔티브가 반영되도록 하는 일을 했습니다.

Q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 혁신과 경제 발전, 그리고 질 높은 교육에 대한 한국의 뛰어난 명성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선진국으로 빠르게 변화한 한국의 발전 경험이 많은 영감을 주었고, 그중에서도 기업가 정신과 기술, 사회적 발전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한국의 발전 양상이 인상 깊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면 귀국 후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Q 한국 유학 후 가장 크게 바뀐 점이 있다면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유학 생활을 통해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뿐 아니라 기술, 과학에 더해 산업, 농업, 공공서비스 등 다양한 경제 분야와의 협업과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원칙과 혁신의 공존이 어떻게 빠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일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배운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원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더라고요. 한국에서의 유학 경험으로 저도 그런 태도를 갖게 됐습니다. 최대한 생산적으로 살아야겠다는 결심도 하고, 무엇보다 시간 관리에 진심이 됐습니다.

Q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면요.

사회적 기업가 정신 분야에 아주 열정적인 백용욱 카이스트 교수님과 함께 일했던 경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백 교수님은 자신의 연구 분야에 매우 성실하고,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관점을 갖고 있어서 그런 점을 많이 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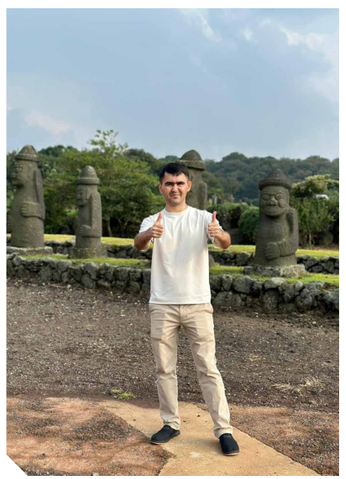
또 여러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과의 교류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타지키스탄과 한국을 넘어 더욱 글로벌한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생들과의 교류는 귀중한 네트워크로 이어졌는데, 지금까지도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Q 유학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학위 과정을 마무리하며 교수님들 앞에서 최종 연구 보고를 할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며 노력한 시간과 그로 인한 성장을 보여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에서의 유학 기간 중 단순히 학문적인 성장뿐 아니라 제가 전문가로서, 한 사람으로서 크게 성장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현재 목표는 뭔가요?

우리 타지키스탄의 사회적 가치 확산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 낼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통상 정책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공부하며 전략적인 기획 및 계획과 기술, 강력한 제도가 어떻게 경



• 한국 여행을 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피르다우시 파루흐조드

제적 혁신을 만들어 내는지 배웠습니다. 이 경험을 타지키스탄 통상 정책에도 접목해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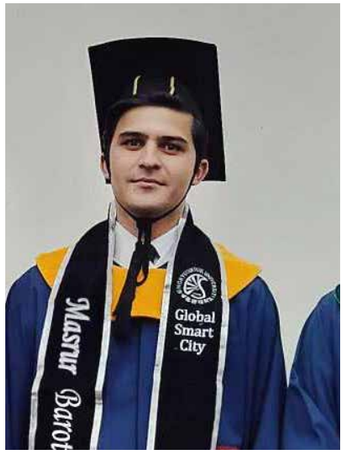
Q 코이카의 글로벌 연수 사업이 타지키스탄과 다른 유학생 파견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를 더 심화한 지식과 실용적 기술, 글로벌한 관점을 견지한 사람으로 성장시킵니다. 당연히 각 나라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요. 학계 간 교류를 넘어 국제협력 분야의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상호 문화적인 이해를 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모든 경험과 지원을 받은 유학생들이 자국에서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만들 거라 생각합니다.

Q 코이카와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이런 소중한 기회를 제공해 준 코이카와 한국 정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 커리어 성장에 크나큰 영향을 줬습니다. 코이카가 이런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저와 같은 장학 사업 유학생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프로그램의 장기적 성과를 극대화하길 기대합니다.

Interview 2



마스루르 바로토프

- 현 타지키스탄 경제통상부 국제협력팀장
- 취득 석사학위: 2022~2024년, 성균관대 스마트시티 석사과정

Q 자기소개를 부탁합니다.

제 이름은 마스루르 바로토프(Masrur Barotov)로, 현재 타지키스탄 경제통상부에서 국제협력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주 관심 분야는 국제개발과 경제적 협력 분야 및 디지털 전환으로 현재 두 개의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타지키스탄 대통령 산하 공공행정 아카데미에서 받은 외교 및 정책학 석사학위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의 성균관대에서 받은 스마트시티 분야 석사학위입니다.

Q 코이카 지원으로 한국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고요.

코이카의 지원 덕분에 2022~2024년 성균관대에서 공부해 스마트시티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타지키스탄이 도시 혁신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시기라 이 전공을 선택했습니다. 성균관대의 스마트시티 과정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데다, 한국의 도시 개발 경험 자체가 타지키스탄의 목표 달성에 아주 의미 있기 때문이죠. 석사과정 중에 저는 과대표를 맡았는데, 여러 국가에서 온 학생들과 논의하며 학과 내외를 둘러싼 여러 일을 맡으면서 리더십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Q 한국에 오기 전엔 무슨 일을 했나요?

타지키스탄 경제통상부의 글로벌 경제협력부에서 시니어 전문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국제통상 업무를 담당하면서 정부 간 논의나 다자간 협력 이니셔티브를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업무들은 제 학문적 관심사와도 잘 맞았는데, 특히 인프라 개발이나 디지털 경제 분야가 그랬습니다.

Q 왜 한국에서 공부하기로 했나요?

디지털 경제, 정보통신 등 혁신적 분야에서 전 세계의 움직임을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빠른 경제 발전, 기술 발전의 비결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장 빠르게 전환한 나라니까요. 한국식 개발 모델은 타지키스탄 경제 발전에 큰 영감을 줄 뿐 아니라 실용적으로도 벤치마킹하기 좋은 모델입니다.

또 개발협력 분야에서 코이카의 뛰어난 활동 성과와 전문성에 대한 명성을 익히 들어왔기에 코이카의 직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꼭 배워보고 싶었습니다.

Q 한국에서 생활하며 어떤 부분을 가장 인상 깊게 배웠나요?

한국 유학을 통해 공적 업무를 바라보는 제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과 정책을 융합해 어떻게 포용적인 성장을 만들어 내는지도 배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제 분야 거버넌스에 있어서 총체적이면서 디지털 중심의 접근을 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에 참석해 기념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마스루르 바로토프(앞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저는 과대표로도 활동했는데,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위해 사람들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설득해야 했던 경험도 저의 의사소통, 리더십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Q 그 과정에서 코이카의 지원은 충분했나요?

코이카 직원들은 언제나 제게 친절했고 필요한 게 있으면 뭐든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또한 여러 행사를 열어주셔서 다양한 나라에서 온 프로그램 참여자들과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쌓은 네트워크는 제 개인적인 발전은 물론 업무 성과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Q 한국에서 생활하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처음엔 언어 장벽이 있다는 점과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한국 학계에 적응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측에서 도움을 주었고, 한국 사회의 친절한 분위기 덕분에 그런 장애물을 빠르게 극복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학업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Q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한국 학생과 저를 비롯한 여러 외국인 학생들이 함께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 방법을 주제로 팀 연구 과제를 수행한 일입니다. 팀워크를 쌓아가며 어려운 연구를 해내고, 또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문화 교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법을 만들어 낼 때, 다양한 문화권의 관점이나 경험을 공유하고 그를 포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Q 전공 분야 관련해선 어떤 경험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 참여해서 전 세계의 디지털 기반 도시 인프라나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들과 교류했던 일입니다. 수업 중에 배운 것과 실제 각국의 현장 경험을 연계해 배움의 깊이를 넓힐 수 있었고 직업적인 목표를 세우는 데도 큰 영향을 줬습니다.

Q 직업적인 목표는 뭔가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지키스탄의 스마트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인프라 건설, 각 지역을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를 이끄는 것입니다. 기술과 데이터를 통해 타지키스탄을 현대화하고, 경제와 도시 인프라를 발전시키는 게 제 꿈입니다.

Q 코이카의 글로벌 연수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훌륭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 기회, 네트워킹, 다양한 경험에 기반해 장학생들이 여러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귀국 후 장학생들은 한국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자국의 발전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얻은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도 타지키스탄 국가 발전의 자산이 될 겁니다. 이러한 장학생들의 노력이 모여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Q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전 세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연수 사업을 진행한 코이카와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한국 정부에 더없이 깊은 감사를 보냅니다. 더불어 디지털 협력과 젊은 리더십 육성에 코이카가 더 많이 기여해 주기 바랍니다. 코이카가 우리에게 제공한 것은 단순한 교육의 기회 이상의 의미죠. 너무나 훌륭한 프로그램이며,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로 타지키스탄 행정이나 국제협력 분야의 전면적인 혁신을 만들어 낼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K



• 글로벌 연수 사업 연수생으로 지내며 만난 한국 친구와 찍은 사진



• 지난 4월 한국의 ODA 사업을 배우기 위해 코이카를 찾은 나즈굴 샤리포바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 매니저

나즈굴 샤리포바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 매니저 인터뷰

“코이카의 ODA 노하우, 잘 배우고 갑니다”

‘도움 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글로벌 ODA(공적개발원조)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이 일궈낸 기적이다. 속속 신흥 공여국이 생겨나면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려는 나라도 늘어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가장 대표적인 신흥 공여국이다. 지난 4월 13~22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 ODA를 배우겠다”며 찾아온 나즈굴 샤리포바 카자흐스탄 국제개발단(Kazakhstan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 이하 KazAID) 매니저를 만났다.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의 기적을 재현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Q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KazAID에서 파트너십 및 지역 프로젝트 부서 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나즈굴 샤리포바라고 합니다. KazAID에서 유럽과 미 대륙을 비롯해 우리 카자흐스탄의 주요 협력 국가인 투르크메니스탄과 타지키스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싱가포르 국제협력 프로그램(SCP)과 카자흐스탄의 나자르바예프대학, 카자흐스탄 대통령 직속 공공행정 아카데미가 함께 진행하는 ‘도스틱(Dostyk): 디지털 전환’이라는 연례 사업이 있습니다. 도스틱은 카자흐어로 ‘우정’을 뜻하고, 이 사업은 중앙아시아 5개국 정부 관계자 및 공공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공공행정 분야에서의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의 디지털 전환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이븐 시나(Avicenna): 보건의료’ 사업을 담당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은 터키 국제협력단(TIKA)과 카자흐스탄 국립 아스타나 의과대학이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의대생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사업명 속의 ‘이븐 시나’는 의학을 비롯해 철학, 과학의 발전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역사에 남은 중세 페르시아 의학자의 이름입니다.

Q 한국에 오신 건 처음인가요? 한국 파견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나요?

이번이 두 번째 한국 방문입니다. 2023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 포럼’ 참석차 한국에 왔던 게 첫 방문이었습니다. 부산 포럼은 지속 가능한 개발과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아주 의미 있는 논의를 꽃피우는 장이자 국제개발협력 분야 관계자들의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특히 코이카의 ODA 사업에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배울 수 있어 기대가 컸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수원국이었지만 지금은 국제협력 사업을 펼치는 공여국이 됐으니까요.

Q KazAID 최초로 코이카 파견 근무를 하는 소감이 궁금합니다.

처음 한국 코이카 파견 근무 얘기를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코이카에 대해 배울 수 있고, 제가 KazAID에서 일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발휘할 수도 있을 테니까요. 이번 경험이 양국 기관 사이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ODA 분야에서 코이카가 쌓아온 경험과 역사를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Q ‘코이카’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무엇보다 2023년 첫 한국 방문 당시 동료들과 함께 코이카 본부에서 사진을 찍었던 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다음은 코이카 상징인 ‘피코(PeKO)’입니다. 피코에 대해선 불과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아주 친근감 있고 다정한 느낌입니다.



• 나즈굴 샤리포바 KazAID 매니저가 경기도 성남 코이카 본부 건물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Q 신흥 공여국인 카자흐스탄의 ODA 전문가로서 한국의 개발협력 경험을 어떻게 보나요?

한국도 카자흐스탄과 마찬가지로 과거엔 도움을 받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DA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남남협력*’이라는 점에선 더욱 그렇죠.

2020년에 설립한 우리 KazAID는 아직 역사가 긴 조직은 아니지만, 매년 성장하면서 사업 규모도 늘려가고 있죠. 그래서 각 사업이 더 좋은 성과를 내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사업 관리 분야 지식 습득이 필수입니다. 그런 면에서 협력 대상 국가뿐 아니라 한국 시민사회나 기업이 ODA에 참여하는 코이카의 경험은 독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인 민관 협력의 차원을 넘어서 민간이 가진 기술이나 전문성을 실제로 다른 나라와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Q 코이카의 어떤 노하우나 시스템이 KazAID의 발전에 가장 큰 도움이 될까요?

프로젝트 계획 과정에 대한 노하우, 시스템 공유가 있다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업 과정이나 완료 후에 발생 가능한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예측하는 방법이나, 팀원 간 업무와 책임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평가관리에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남남협력: 북반구의 선진국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남반구의 개발도상국 간의 경제·기술·정치적 상호 협력

Q 파견 기간에 가장 배우고 싶은 게 있다면요?

실제 ODA 사업을 해보니 사업에 어떤 걸 먼저 고려해야 하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아는 게 아주 중요하더군요. 그래서 이 점을 배우고 싶습니다. 코이카가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부터 어떤 점을 고려해 전 과정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도 요. 협력 국가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빈틈없이 계획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 사업 성과의 효과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도 배우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 시작 단계에 세운 목표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KazAID의 핵심 사업지인 중앙아시아에 대한 코이카의 활동과 그 안에서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Q KazAID와 코이카가 함께한 협력 사업에는 어떤 게 있었나요?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인가요?

코이카는 KazAID의 설립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2021년에 코이카와 KazAID는 MOU를 맺고 ODA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죠. 2024년 12월에는 상호 의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MOU를 갱신했습니다. 첫 번째 액션 플랜에 따라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ODA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이미 수차례 회의를 진행하는 등 공동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코이카 대표단이 KazAID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KazAID와 코이카가 2025~2027년의 협력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두 번째 액션 플랜에 서명했습니다. KazAID는 이 합의에 따라 협력을 이어갈 예정인데, 이번 파견도 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지난 몇 년간 코이카와 KazAID는 공공행정 분야 디지털 전환을 위해 공동 펠로우십 트레이닝 사업인 '중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전환 목표 역량 강화 사업'을



• 나즈굴 샤리포바 KazAID 매니저(오른쪽 세 번째)와 코이카 직원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담소를 나누고 있다.

함께 개발해 왔습니다. 몇 년에 걸친 장기 연수의 시작점이 되는 게 앞서 말씀드린 '도스틱(Dostyk): 디지털 전환' 사업인데, 올해 7월에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6년과 2027년에는 사업 참가자들이 한국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갈 기회도 있을 겁니다. 더불어 우리 기관이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각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초청해 이 분야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경험도 공유할 생각입니다. 몇 년에 걸쳐 진행할 이 사업에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해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전체가 참여할 겁니다.

Q 조금 가벼운 질문들을 해볼게요. 카자흐스탄에 한국이 잘 알려져 있나요?

물론입니다. K-팝, K-드라마가 유명하고 특히 한국 음식이 인기가 아주 많습니다. 카자흐스탄엔 한국 식당도 많고요, 거의 모든 식당에서 한국 라면을 팔 정도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떡볶이를 아주 좋아합니다. 또 한국 영화가 카자흐스탄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더군요. 한국에는 아주 창의적이고 재미있는 영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Q 한국 파견 기간에 경험한 가장 인상적인 장소나 음식이 있다면요?

N서울타워,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숲에 다녀왔습니다. N서울타워에서는 서울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건축가 자하 하디드(Zaha Hadid)가 설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미래지향적 건축 양식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서울숲의 경우, 자연 속에서 게임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로 가득한 공간이라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 오면 붕어빵을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꼭 먹어보고 싶어요.

Q 귀국하면 한국의 어떤 점이 가장 많이 생각날 것 같나요?

당연히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특히 코이카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이 가장 오래 기억에 남을 겁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받은 따뜻한 환대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코이카 분들이 정말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더 많은 사람들을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번은 카자흐스탄어와 러시아어로 대화하며 카자흐스탄의 전통 유제품 '쿠르트'를 먹은 적도 있습니다. 한국 생활 중 이런 경험을 할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정말 기뻤어요.

Q 끝으로 향후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한-중앙아 관계에 기대하는 게 있다면요?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가장 큰 투자와 무역 파트너입니다. 또한 우리 카자흐스탄엔 한국인 후손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매년 한국-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을 열어왔다는 점에서도 카자흐스탄과 한국은 서로를 중요한 협력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죠. 앞으로도 한국이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5개국과 상호 협력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단계적으로 풀어나가길 희망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이룬 전 세계적 성과를 생각할 때 한국이 민관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손잡는다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큰 시너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



• 광주광역시에 정착한 고려인 미술 거장 문빅토르 화백

고려인 미술 거장 문빅토르 화백 인터뷰

"고려인 강제이주의 역사를 전하는 작품 남기고파"

고려인의 역사와 자신의 뿌리를 찾아온 화가, 문빅토르 화백이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에 정착했다. 1951년생인 그는 고향인 카자흐스탄에서 그동안 그려온 그림들을 한아름 안고 조상의 땅으로 돌아왔다. 그의 정식 정착일은 2024년 3월 1일. 이제 그는 광주에서 여생을 미술로 정리하며, 후세를 위한 예술적 유산을 남기고자 한다.

카자흐스탄 우슈토베 출신의 고려인 3세인 그는 고려인 최초 정착지에서 태어나, 1975년 알마티 미술대학 졸업 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카자흐스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이하 고려극장)과 풍자 잡지 '아라쉬멜'에서 각각 주임미술가로 일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궁과 국립미술관을 비롯해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집트, 일본, 러시아 등지의 미술관에 작품이 소장된 국제적인 화가이기도 하다. 이처럼 그는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었지만 그의 그림은 한국 귀환 이후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

정착 이후 내 그림은 '우리 역사' 담은 작품

"카자흐스탄에선 고려인의 역사를 담은 그림은 단지 '소수민족의 이야기'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곳(광주)에선 그것이 '우리의 역사'로 받아들여집니다.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가 처음 광주를 찾은 것은 1994년의 전시회였다. 이후 2014년 그는 광주에 머물며 그림 작업을 하던 중 지인 도움으로 자신의 성씨가 '남평 문씨'임을 알게 되었고, 남평 문씨 탄생설화가 깃든 '문바위'에도 직접 다녀왔다. "그때 비로소 내 뿌리를 찾았다"라고 그는 회상한다.

그의 가족사는 이주와 망명, 생존과 회귀

의 서사로 가득하다. 할아버지가 러시아 연해주로, 이후 카자흐스탄으로 이주해 활동했고, 문빅토르 화백은 다시 그 여정을 거슬러 한반도로 돌아왔다. "한반도에 돌아온 것은 마치 운명 같다"라는 그의 말이 단순한 감상처럼 들리지 않는 이유이다.



• 문빅토르 화백은 한국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 작업에 한창이다. 중앙아시아에 사는 고려인 아이들이 자신의 뿌리를 이야기 속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려인의 마음, 고려극장

그의 예술 여정은 어린 시절의 한 장면에서 시작됐다. "저는 카자흐스탄의 우슈토베에서도 깊은 시골 마을, 레닌키츠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주변엔 제대로 된 집도 없었죠. 저는 흙집에 살았는데, 10살 때 엽서에 그려진 지휘관의 얼굴을 벽돌에 부엌칼로 조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온 후 이웃집 할머니가 그 지휘관의 얼굴을 보고 기절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비 때문에 조각이 기괴하게 변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종이와 연필을 사주며 집에서 그림을 그리게 했죠. 어머니는 서예를 잘했는데 주변에 그림 그릴 줄 아는 지인분들한테 부탁해 조금씩 그림을 배울 수 있었어요. 이후 알마티 미술대학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공부하며 지금의 회화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예술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은 또 있다. 바로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고려극장이다. 그는 이 극장에서 주임 미술가로 일했다. 당시 조명과 무대 장비가 부족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무대 배경과 의상을 직접 손으로 그리며 무대미술의 전 과정을 책임졌다. 5~10m 크기의 대형 무대화도 직접 그렸고, '홍부놀부' 등의 설화 연출에도 깊게 관여했다.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등지로 순회공연을 간 극단도 따라다니며 소품 설치부터 철거까지 도맡았다. 고려극장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었다. 고려인 공동체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문화 성역이었고, 그에게는 예술가로서의 기반이자 민족적 자각을 일깨워 준 훈련장이었다.

"고려극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학교였어요. 공동체와 함께 호흡하며, 역사와 문화를 예술로 풀어내는 법을 그곳에서 배웠습니다."

고려극장은 2023년 코이카의 지원으로 무대, 조명, 음향 장비가 현대화됐다. 그는 코이카의 지원을 매우 기쁘게 여기며 "그 공간이 앞으로도 고려인의 문화적 자부심을 지켜나가는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광주 고려인마을과 문빅토르미술관

그에게 광주는 특별한 공간이다. 이곳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깨닫게 해준 장소이자 예술가로서의 두 번째 탄생을 가능케 한 도시였다.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을 맞아 광주 우제길미술관에서 열린 개인전은 그의 작품 세계를 처음으로 한국 사회에 깊이 각인시킨 계기가 되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시대의 고통과 역사를 담은 거대한 풍경이었다.

2022년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그는 광주 고려인마을의 도움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를 계기로 광주에 영구 거주할 결심을 한다. 당시 재외동포비자(F4)를 취득해 정착을 준비했고,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건강도 뚜렷이 호전됐다. 그는 그때를 돌아보며 "몸이 나아가자, 마음도 나아지더라"라고 회상했다. 그가 다시 붓을 들 수 있었던 건 단지 의학의 성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응원과 공동체의 환대 덕분이었다.

2024년 그는 그간 그린 수많은 그림과 함께 광주로 돌아왔다. 그를 위해 고려인마을은 2023년부터 미술관 건립을 위한 모금운동을 벌여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2층 한편을 그의 작업실 겸 전시관으로 조성하기도 했다. 그렇게 태어난 공간이 바로 '문빅토르미술관'이다.

미술관은 2024년 3월 1일 정식 개관했다. 개관 전시에서는 그의 대표작 〈1937 고려인 강제이주열차〉, 〈우수리스크의 우리 할아버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해 국내 최초로 공개되는 아크릴 작품 50여 점이 전시됐다. 회화, 조형, 기록과 증언의 경계를 넘나드는 그의 작품은 감상의 대상을 넘어 '역사의 기록'으로 평가됐다. 특히 〈1937 고려인 강제이주열차〉는 광주 고려인문화관 타일 벽화로도 제작되어, 지역사회의 공공기억으로 확장됐다.

점으로 쌓은 기억의 화폭

그는 이주와 망명의 기억을 단지 개인의 서사로 남기지 않는다. 〈우수리스크의 우리 할아버지〉는 직접 만나지 못한 조부의 삶을 상상해 그린 작품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간 고려인 선조에 대한 그리움이 오롯이 담겨 있다.

"어린 시절, 어머니는 강제이주의 아픈 기억을 자식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꺼리셨어요. 이는 제가 고려인이라는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죠. 성인이 되어 외조부가 조선인이며, 가족이 강제이주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야, 이 역사적 사실을 예술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작품 중 하나가 〈우수리스크의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직접 만나지 못한 조부의 삶을 상상하며 고려인의 아픔과 그리움을 표현했지요.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강제이주의 기억을 후대에 전달하는 귀중한 기록물로 남기고자 하는 소망도 있습니다."



• 문빅토르 화백의 작품 <세 자매>.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이름의 세 자매가 함께 이어져 있는 모습을 통해 하나의 공동체로 살아가길 바라는 화합의 희망을 담았다.



•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조상의 모습을 통해 문 씨 가문의 뿌리를 형상화한 작품 〈고려인 선조〉. 맨 아래, 양복을 입은 인물은 문빅토르 화백 자신이다.

그의 그림은 점묘법으로 완성된다. 수만 개의 점으로 형체와 이야기를 쌓아올리는 이 방식은 디지털 회화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아날로그의 집념처럼 보인다. "하나하나 점을 찍는 시간은 제게 명상과도 같습니다. 손이 많이 가지만 그만큼 깊이도 생깁니다."

문빅토르 화백의 작업은 '느림'에 대한 예찬이며 동시에 '기억'에 대한 투쟁이다. 그는 한 점, 한 점에 고려인의 역사와 생존의 흔적을 새기며 말보다 더 오래 남을 언어로 그림을 쓴다.

이제 그는 말한다. "광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 제가 걸어온 이 길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의 귀환은 과거를 마주한 복귀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그는 더 이상 떠도는 화가가 아니다. 그는 광주라는 땅에 고려인의 뿌리를 내리고 새로운 결실을 키우고 있다.



• 광주광역시 월곡동 고려인마을 특화거리. 키릴문자 간판이 눈에 띈다.

한국 속 작은 중앙아시아, 광주 '고려인마을'

이주의 역사 품은 골목, 공존의 가치를 노래하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는 '돌아온 사람들'이 살고 있다. 19세기 말 대한제국에서 러시아로 이주한 뒤 1937년 스탈린 정권의 강제이주 정책으로 중앙아시아까지 떠밀려야 했던 고려인과 그 후손들이 이제 이곳에서 다시 뿌리를 내리고 있다. 월곡동 일대 '고려인마을 특화거리'라 불리는 이곳은 이주와 귀환, 상처와 회복, 그리고 공존의 가능성이 겹치는 대한민국 다문화사회의 축소판이다. 그 속을 걷다 보면 골목 탐험이 한 시대의 역사를 만나는 일이 된다.



• 고려인마을의 중앙아시아식 화덕에서 굽고 있는 '쌈사'. 우즈베키스탄 전통 빵이다.

월곡동에 내려앉은 고려인의 시간

고려인마을 일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키릴문자 간판과 러시아어로 적힌 안내문들이다. 정육점 간판부터 식료품점, 카페, 환전소안내판까지 마치 중앙아시아의 어느 도시를 축소한 듯한 풍경이 펼쳐진다. 이 거리에는 다양한 언어와 냄새, 표정들이 섞여 있지만 모두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녹아든다.

고려인의 존재는 이 지역 모습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사진을 촬영하다가 교문 쪽에서 나오는 아이들과 눈이 마주쳤다. "학교 끝난 거야?"라고 묻자, 동양계 아이와 서양계 아이가 동시에 "아니요"라고 말하며 러시아어 몇 마디를 덧붙이고는 골목 끝으로 달려갔다. 뜻은 알 수 없지만 표정과 어조만으로도 이곳이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졌다. 한국적이면서도 이국의 냄새가 흐르는 분위기, 이 말 외에는 표현하기 어려운 느낌이었다.

한 사람의 손길, 공동체가 되다

점심시간에 방문한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로비는 마치 가정집처럼 따뜻한 분위기였다.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분주히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떻게 오셨냐"는 신조야 대표의 질문에 취재 약속이 있다고 하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빨리 오셨네요! 밥부터 같이 먹고 시작합시다"라며 손수 상을 차렸다. 미역국과 가자미구이, 그리고 당근김치가 놓인 밥상은 익숙하면서도 이국적인 풍경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테이블 위엔 다과가 올랐다. 이름 모를 잎차가 향기로워 무엇인지 묻자 신 대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마시던 홍차"라며 웃었다. 산딸기잼과 함께 중앙아시아식 빵, 독특한 모양의 쿠키와 견과류 간식을 내는 신 대표의 모습에서 고려인이 고향 음식을 나누는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누군가에겐 단순한 다과로 보일 수 있는 테이블 위 풍경은 이방인을 환대로 안아주는 공동체의 정겨운 모습이었다.

고려인마을의 현재를 있게 한 데는 신조야 대표의 헌신이 결정적이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난 고려인 3세인 그는 딸의 국제결혼을 계기로 2001년 광주에 정착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땐 공장에 다니며 생계를 이어갔고 낯선 제도와 언어, 노동 착취 같은 현실에 부딪혔다. 하지만 그녀는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현실의 문제들을 극복했고, 자신과 같은 처지의 고려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들을 많은 고려인에게 전하기 위해서였다.

2009년 고려인센터를 설립하고 한글교실과 의료 지원, 생활 상담을 시작했다. 2015년에는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를 개소하며 지역 공동체 중심의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갔다. 그가 강조하는 리더십은 언제나 '공감'과 '돌봄'이다.

"이 마을은 먼저 손을 내민 사람들이 만들어 낸 공동체예요."

그의 말처럼, 고려인마을은 한 명의 돌봄이 수백 명의 정착으로 이어진 사례다. 센터 3층 라디오 방송국 'GBS 고려방송'도 그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고려FM'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지 10년, 이제는 FM 93.5MHz 지상파 라디오로 확장됐다. 이는 단순한 방송이 아니라 고립된 디아스포라*가 세상과 연결되는 중요한 다리다.

기억을 입은 벽, 예술로 하나된 마을

2024년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고려인마을 그리고 '공공미술공동체'가 손잡고 마을 전



• 중앙아시아 전통 의상에 관해 설명하는 신조야 고려인마을 종합지원센터 대표. 그는 고려인 공동체의 구심점으로 마을의 엄마 같은 존재다.

*고향이나 조국을 떠나 타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의 공동체



• 광주 고려인마을의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 중 하나인 <생명의 이식쿨>. '이식쿨'은 키르기스스탄에 있는 호수로 이곳에 고대 왕국의 전설이 깃들어 있다고 알려졌다.



•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새 단장한 고려인마을

체를 예술로 덧입히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중앙아시아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이 프로젝트에는 회화, 조형, 음악, 영상 등과 연관한 27명의 예술가가 참여했다. 그들의 첫 작업은 색이 바랜 외벽을 도색하는 일이었다. 오래된 담벼락과 폐쇄된 상가 건물이 하나둘 색을 입으며 살아났다. 거리 곳곳엔 '1937 강제이주 열차'를 형상화한 대형 조형물, 고려인의 전통 의상을 입은 인물 조형, 중앙아시아 문양의 타일 벽화 등이 들어섰다. 다모아어린이공원은 '홍범도공원'으로 새 이름을 얻고,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흉상이 세워졌다.

이곳 고려인들의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단지 미관의 변화가 아니라 '기억을 공유하는 방식'을 낳았다. 낯선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하나의 기억을 가질 때 그 마을은 진정한 공동체가 된다. 공공미술은 그 과정을 예술로 이끌었다.

월곡고려인문화관, 기억의 전시장

광주 고려인마을의 정신적 중심지 중 하나가 바로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이다. 이곳은 단순히 유물과 사진이 전시된 박물관이 아니다. 그보다는 한민족의 이산과 귀환, 정체성과 언어의 회복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산실에 가깝다.

문화관 1층에는 '강제이주의 길'을 따라 조성된 상설전시관이 자리한다. 이곳에서는 고려인이란 이름 아래 묶인 다양한 경로의 이주사와 함께, 개인의 기억들이 마치 파편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엿볼 수 있다. 관람객들은 당시 사용됐던 러시아어 교과서, 어느 고려인의 어린 시절 사진, 국립 아카데미 고려극장의 무대 사진과 포스터 등을 통해 민족의 시간을 재구성한다.

2층 기획전시실에서는 '중앙아시아 초원에 피어난 고려인 한글문학 기획전'이 열리고 있었다. 이 전시는 예술이 고려인의 정체성과 어떻게 맞닿았는지를 풀어내는 시도였다. 소련 체제 아래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려극장 예술가들의 절박한 표현과 실험, 그리고 그 안에 녹아든 한국적 상징들이 오롯이 드러났다.

특히 '고려아리랑' 코너에서는 김병학 문화관장이 작곡한 아리랑 선율에 맞춰, 카자흐스탄 재즈 1세대 음악가 한야코프의 편곡이 더해진 특별한 음악이 흘러나온다. 다정하고 처연한 멜로디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하다. "우리는 잊지 않았다."

문화관 주차장 한쪽에는 실제 '카자흐스탄 유목민 전통 가옥'이 설치되어 있다. 외양은 소박하지만 천 조각 하나, 문틀의 색감 하나까지 신중하게 재현되어 있다. 그것은 단지 과거를 보여주는 전시물이 아니라 이주 이전의 기억과 그리움을 상징하는 '작은 고향'이다.

문화관 주차장 벽화에는 구소련 시대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민족들이 소개되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이 없지만, 자세와 옷매무새에서 묻어나는 자긍심은 보는 이의 마음을 붙들었다. 한국인 관람객들에게 이 그림은 익숙한 듯 낯선, '내가 몰랐던 우리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거울과도 같다.

공존, 연결의 협력… 공적개발원조의 새로운 시선

광주 고려인마을은 단순한 이주민 정책의 결과물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다. 이 마을은 외국인 정착을 위한 '시혜적 복지'를 넘어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공존의 실천'을 증명한다.

고려인마을에서 추진되는 여러 활동은 코이카가 추구하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과도 맞닿아 있다. 특정 지역에 대한 단순한 해외 원조를 넘어 그 지역에 사는 이들을 연결하고 그들의 삶까지 바라보는 '연결의 협력'이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접점이자 ODA(공적개발원조)의 새로운 시선을 제안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현재 고려인마을은 이주민 통합, 도시재생, 인구소멸 대응 정책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방인'을 우리 사회 속 '시민'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한 질문에 고려인마을은 '공존의 풍경'으로 답하고 있다. K



• 월곡고려인문화관 '결'의 주차장 앞에 설치된 카자흐스탄 유목민 전통 가옥 '유르트'



• 고려인들의 정신적 지주인 홍범도 장군 흉상. 고려인마을 내 '홍범도공원'에서 만날 수 있다.



• 우리 기업의 글로벌 ODA 시장 진출의 기회를 마련하는 '2025년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가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2025년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

코이카 날개 단 한국 기업, 글로벌 시장으로 '훨훨'

"지속 가능한 ODA(공적개발원조) 생태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면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성장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2025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이하 참여전략 설명회)'가 열렸다. 개회사로 행사의 문을 연 손정미 코이카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 이사는 "오늘날의 개발협력은 단순한 원조가 아니라 전 세계의 공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개발도상국이 가진 성장 잠재력과 우리 기업의 혁신적 기술과 자본을 매칭한다면 상호 폭발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ODA 시장 진출 희망하는 우리 기업 모여라

2017년 처음 시작한 이래 이날로 8회째를 맞이한 참여전략 설명회는 국내외 ODA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들을 위해 코이카가 마련한 정보 제공의 장이다.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ODA 동향부터 코이카, 수출입은행, 글로벌 다자개발은행(MDB) 등 국내외 ODA 수행 기관들이 이끄는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형 족집게 강의'라 할 만하다.

행사는 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서는 '한국 ODA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 참여 방안'을 주제로 ▲코이카 ODA 조달 참여 방안 및 2025년 발주 계획 ▲코이카 기업협력 프로그램 공모 참여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ODA 조달 사업 참여 방안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국제기구 및 다자개발은행을 통한 ODA 사업 참여 방안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사업 참여 방안 ▲글로벌 ODA 사업 참여를 통한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우수 사례 순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현장에는 30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여 설명회 자리를 뜨겁게 달궜다.

나날이 증가하는 ODA 예산 규모… 7,000억 원 원조조달 사업 참여 기회 열려

1부 첫 발표자로 나선 장서희 코이카 조달1팀장은 올해 약 7,000억 원 규모의 신규 입찰 발주 계획을 중심으로 조달 참여 절차와 팁을 소개했다. 장 팀장은 "ODA 사업은 수원국 정부 공공의 문제 해결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라며 "수원국 정부의 요구를 파악해 해당 국가 정책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ODA 사업 절차·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발표에 나선 김혜원 코이카 기업협력사업팀장은 코이카의 대표 민간협력 사업으로 자리 잡은 CTS와 IBS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CTS는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혁신 기술이나 제품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코이카가 협력해 원조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예비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는 SEED 0부터, 기술개발이 완료된 기업의 개발도상국 시범사업을 위해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SEED 2까지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협력을 지원한다. 여기에 패스트트랙으로 SEED 1과 2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CTS-TIPS 연계형 사업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SEED 0은 123개, SEED 1은 78개, SEED 2가 37곳 등 총 238개 기업이 참여했다.



• 우리 기업의 ODA 사업 조달 참여 절차와 팁을 소개하는 장서희 코이카 조달1팀장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뜻하는 IBS는 우리 기업이 개발도상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더욱 큰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은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 대기업은 물론 투자사도 참여할 수 있다. 김 팀장은 "우리 정부의 중점 전략과 수원국의 주요 산업을 연계해 생산부터 가공, 판매, 마케팅, 유통까지 큰 밸류 체인을 만들도록 돕는 사업"이라고 했다. CTS와 IBS의 가장 큰 차이는 사업비 구성이다. 창업부터 성장 단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CTS의 사업비는 전액 코이카가 지원하지만, IBS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7대 3과 8대 2 등 기업이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는 매칭펀드로 운영된다.



• 김혜원 코이카 기업협력사업팀장이 CTS와 IBS의 차이점과 장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1부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추진호 한국수출입은행 팀장은 유상원조 참여 방법을 소개했다. 추 팀장은 "유상원조 기금은 국가 간 차관으로 진행돼 외교 경로를 통한 정식 문서 수발이 필요하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서류의 작은 내용도 임의로 생각해 바꿔서 제출하거나 구비서류를 누락하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넘어 세계로, 국제기구와 다자개발은행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

2부 첫 발표자로는 이계천 코다비즈(KODABIZ) 프로젝트 매니저가 우리 기업들이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한국이 가입한 다자개발은행에 설치된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추진하는 ODA 국제 조달 시장에 주



• 이계천 코다비즈 프로젝트 매니저가 한국이 가입한 다자개발은행에 설치된 한국신탁기금을 통해 추진되는 ODA 국제 경쟁 입찰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 손정미 코이카 글로벌연대·파트너십본부 이사,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백승보 조달청 차장 등 2025년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다비즈는 'KOICA 글로벌 ODA 기업진출 센터'의 영문 이름으로,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ODA 시장 입찰 정보 ▲글로벌 ODA 진출 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및 제안서 자문 ▲해외 마케팅 및 벤더 매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매니저는 "작년 한 해 우리 기업들이 코다비즈 서비스를 통해 1,000만 달러가 넘는 글로벌 ODA 사업을 수주했다. 올해도 많은 기업이 코다비즈 서비스를 활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진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한국사무소 대표도 발표자로 나서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ODA 시장 진출을 독려했다. 이 대표는 "중미경제통합은행 한국신탁기금 사업은 조달 발주 시 한국 기업에 일정 부분 혜택을 주고 있다. 중미 시장은 앞으로도 인프라 개발 등 다양한 기회가 확장될 예정이니,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면서 중미 지역에 관해 공부를 깊이 한 기업에 기회가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ODA 시장 진출 성공 기업 "코이카 통해 현지의 니즈와 상품성 확인"

행사 말미에는 코이카를 통해 ODA 시장 진출에 성공한 대표 기업 두 곳이 나와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2015년 설립한 소셜벤처 기업 '닷'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디바이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 점자 스마트워치, 촉각패드 등을 출시했다. 발표자로 나선 김지은 닷 대리는 "코이카의 CTS를 통해 우리 제품이 사회적 가치와 시장성을 가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현장의 니즈에 맞춘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었다"며 ODA 시장 진출의 성공 이유를 밝혔다.

1990년에 설립한 ICT 컨설팅 전문 기업 '문엔지니어링'은 2023년 기준 매출액 350억 원 규모의 '강소기업' 중 하나다. 2010년부터 ODA 사업에 참여했고 2015년에 처음 코이카 사업을 수주하며 사업 분야를 확장했다. 임응수 문엔지니어링 부사장은 "개발도상국 사업 추진 시 코이카의 리스크 관리 자문이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임 부사장은 "문엔지니어링은 국내에선 업력이 있고 인정받는 회사이지만 개발도상국은 정치적 불안정성,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등의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 혼자서 이를 대응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코이카 같은 전문 기관의 자문을 통해 회사 내부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행사장 밖에서도 열기를 이어갔다. 코이카가 행사장 밖에 개별 상담과 참여 기업 홍보를 위해 설치한 부스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당일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만 20곳이며, 다음날 이어진 온라인 컨설팅에는 103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코이카 관계자는 "향후 우리 기업의 ODA 시장 확대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라며 "거대한 해외 원조 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 글로벌 사회적 가치 확산과 대한민국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열매를 모두 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25년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 행사장 밖에서는 기업 관계자가 행사 참석자들에게 컨설팅을 진행했다.

Mini Interview 1

"개발도상국 수요에 맞는 장애인 설루션 보급해"



시각장애인 위한 소셜벤처 기업 '닷'
김지은 대리

Q 코이카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나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17년 CTS SEED 1, 2 사업을 통해 설루션을 개발했고, 2023년 코이카와 조달청이 함께한 수출선도형 시범구매 사업에 선정됐죠. CTS를 통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가형 점자리더기 '닷미니' 개발에 성공했어요. 이를 사업화해 케냐와 인도의 시각장애인 학교에 300대 보급에 성공했습니다. 조달청 시범구매 사업 선정으로는 시각장애인 학습 지원용 보조기기인 닷패드를 캄보디아 교육부 산하 특수교육부 ALAC 시각장애인 학교에 40대 보급했고요.

Q 코이카에서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먼저 시범구매 사업에선 계획, 결과 보고까지 전체적 사업을 코이카 동반성장팀과 함께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의 본질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여기에 코이카 캄보디아사무소가 직접 나서 현지 수요 기관과 소통을 맡아 주신 덕분에 현지 홍보, 교육, 피드백 취합, 모니터링 등 모든 과정을 큰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Q 점자도 나라마다 다를 텐데, 개발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각 나라마다 다르기도 하고, 언어적 특성으로 점자 구현이 어려운 언어도 있어 난이도도 다릅니다. 대표적인 게 캄보디아에서 쓰는 크메르어인데요. 현재 '닷' 외 시중에 상용화된 어떤 점자 엔진을 연동해도 크메르어를 100% 정확히 구현하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에 착수했고, 캄보디아 특수교육부와 대학 등 현지 파트너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했어요. 이 과정에서 코이카 측에서 직접 캄보디아 특수교육부와의 대화에 나서며 이 과정에 대한 설득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Q 그밖에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요.

추가 수요 발굴을 위해 우즈베키스탄에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코이카 사무소와 우리 '닷'이 MOU를 체결했는데, 당시 우즈베키스탄 교육부 장관 고문께서 "ODA로 제공되는 제품 대부분이 선진국에서 이미 사용하다 시간이 지나 흘러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로지 현지의 수요와 상황을 파악해 맞춤 개발해준 한국에 큰 감사를 표한다"라고 말씀해주신 것이 기억납니다. 현장의 수요와 상황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우리 '닷'과 코이카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Q 앞으로 코이카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있나요?

더욱 적극적으로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코다비즈 서비스를 활용해 국제기구 진출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때에도 사업 발굴을 위해 코이카의 도움을 희망합니다. 또 향후 코이카 IBS 사업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 시각장애인 위한 소셜벤처 기업 '닷'은 우즈베키스탄 유아일반교육부에 자체 개발한 혁신 제품 닷패드와 IT기기를 기증했다.



• 요르단 왕립학교 전맹 시각장애인 교사(왼쪽에서 두 번째)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셜벤처 기업 '닷'이 개발한 닷패드를 통해 요르단 국기를 확인하고 있다.

Mini Interview 2

“코이카가 국가별 법과 행정에 대한 정보 제공”



ICT 컨설팅 전문 기업 ‘문엔지니어링’
임응수 부사장

Q 코이카 프로그램에 참여한 계기를 알려주세요.
전자정부, 스마트시티, 재난관리 등 다양한 ICT 설루션을 제공해온 우리 회사는 지속적 성장을 위해 글로벌 진출을 계획했습니다. 개도국은 우리와 상황도 다른 데다 리스크도 크기 때문에 코다비즈를 통해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Q 어떤 리스크인가요?
개도국은 정치, 경제 상황이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정권 교체나 정권 변화로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중단되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환율이 변동하면 큰 영향을 받죠. 국가별 세금제도, 행정 절차 차이로 작은 실수도 큰 추가 비용과 시간 소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코다비즈에서 리스크 관리 방법을 포함해 전반적인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수행 능력을 배양했습니다. 특히 국제기구 사업 정보를 제공받고 입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제안서 작성을 지원받은 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국제기구의 조달 기준이나 현지 상황에 대한 조언을 받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죠.

Q 실제 도움이 된 사례가 있습니까?
한 나라에서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프로젝트 착수가 지연될 위기에 처했어요. 회사 차원에서 직접 현지 정부 관계자들과 논의했는데 진행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코이카 현지 사무소의 도움으로 해당 국가의 법과 행정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문제를 잘 해결했습니다. 또 아프리카 지역 프로젝트 수행 당시 언어와 문화 장벽으로 어려움이 컸는데 코이카에서 파견한 봉사단원들의 도움으로 현지 관행과 문화를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어요. 또 현지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누구를 신뢰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코이카의 지원을 통해 네트워킹 기회를 얻어 꼭 맞는 전문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 ICT 컨설팅 전문기업 문엔지니어링은 라호르 집중우체국의 우정공공서비스 현대화 사업을 진행했다. 사진은 문엔지니어링 임직원과 현지인들이 함께한 모습

Q 코이카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요.
코이카의 지원이 우리 사업에 크게 도움이 됐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수주, 입찰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후속 지원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수행, 유지보수 과정에 도움을 주는 공식적인 지원 네트워크나 체계가 있다면 우리 기업이 더욱 큰 성과를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K



• 2020년 한국이 발사한 세계 최초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 2B호’. 아시아 지역 대기오염 상태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

아태 지역 대기오염, 환경위성 ‘판도라’로 공동 대응

한국은 2020년 2월 세계 최초의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 2B호’ 발사에 성공했다. 정지궤도 위성은 약 3만 6,000㎞ 고도에서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속도로 지구를 공전한다. 매일 약 8회 아시아 지역 대기오염 물질의 분포와 이동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다. 위성의 시야는 한국에 그치지 않는다. 가까운 일본부터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까지 5,000㎞ 규모의 아시아 대륙 전체를 관측한다. 같은 해 코이카는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했다. 5년간 400만 달러(약 58억 원)가 투입된 대규모 프로젝트로 아시아 전역에 20대의 지상관측장비 ‘판도라’를 설치했고, 위성 데이터와 연동된 대기정보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번 사업은 대기환경 데이터를 아시아 국가들이 공유하고 대기오염 대응 방안을 함께 찾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이카를 중심으로 한국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이 4자 협력했고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등 8개국 정부가 동참했다. 이 사업에서 코이카는 전체 운영과 성과 관리,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총괄했다. 한국환경과학원은 환경위성에서 관측한 데이터를 아시아 국가들에 제공하고, 지상관측망 구축 사업을 맡고 아시아 기술센터를 운영했다. 한국환경공단은 판도라를 설치하고 각국에서 이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범운영을 담당했다.

특히 UNESCAP은 각국의 정책 수요를 파악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전략 수립을 지원했다. 또 위성과 장비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지 교육을 진행하며 역량 강화를 담당했다.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의 역량 강화 파트를 담당한 UNESCAP의 티지아나 보나파체 ICT재난방지국장에게 사업의 의미와 성과, 향후 지속가능성에 대해 들어봤다.

Q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시작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우주 기반의 데이터와 지상 센서 데이터를 통합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했어요. 위성 데이터는 넓은 지역을 관측할 수 있고, 지상 데이터는 그 신뢰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실질적인 대기오염 감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입니다. 한국은 전국 870여 개의 대기질 측정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14개, 태국은 96개 등에 불과해요. 특히 국경을 넘는 대기오염을 측정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 격차를 메우기 위해 위성과 지상 장비 데이터를 통합해서 도시뿐 아니라 농촌과 국경 지역에서도 정기적으로 대기질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해요.

한국 정부는 2019년 위성 데이터를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번 프로젝트는 그 약속을 실현한 결과물입니다.





• 2022년 아시아 환경위성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 사업을 함께하는 참가국 대표들이 지상관측장비 '판도라' 관련 전문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 공동으로 위성을 활용하면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고, 여러 나라가 데이터를 검증함으로써 위성 데이터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Q 개별 국가가 자체 위성을 활용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위성을 공동으로 사용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과 신뢰성입니다. 아태 지역에는 우주에 진출한 국가가 많지 않습니다. 위성 하나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번 플랫폼처럼 공동으로 위성을 활용하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의 정확도예요. 위성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증과 보정이 필요하거든요. 여러 나라가 각자 데이터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면 위성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플랫폼의 진짜 강점입니다.

Q 위성을 통해 수집, 공유하는 데이터의 유형은 무엇인가요?

환경위성(Geostationary Environment Monitoring Spectrometer)은 지표면 오존,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에어로졸(PM), 포름알데히드 등 다양한 주요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환경위성에서 수집한 데이터는 햇빛에 의한 지구 표면 반사율 신호를 통해 대기 화합물이나 공기 입자의 햇빛 흡수 특성을 파악해 다양한 위성 데이터로 전환됩니다.

Q 플랫폼의 실질적 혜택은 무엇인가요?

코이카 사업을 통해 프로젝트 참여 국가들은 이제 매일 위성 데이터를 무료로 실시간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건 굉장한 변화예요. 또 각국 지역의 환경에 맞게 위성 데이터를 검증하고 보정하기 위해 지상관측장비인 판도라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덕분에 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주요 도시의 국지적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기오염 물질 흐름이나 계절별 추세, 심지어 화산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현상까지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데이터를 자체 수집하거나 분석하기 어려웠던 나라들이 이제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정책을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겁니다.



• 티지아나 보나파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ICT재난방지국장

Q 아시아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며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대기오염은 워낙 민감한 주제라서 국가마다 처한 상황이나 관점이 달랐습니다. 국경을 넘는 문제이다 보니 책임 소재나 해결 방식에 대해서도 쉽게 의견이 모이지 않았어요.

특히 국가마다 행정 절차나 의사결정 구조가 제각각이라 여러 나라와 동시에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합의를 해도 막상 실행에 들어가면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또 하나는 기술적 인프라의 차이였습니다. 위성에서 측정한 대기질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디지털 장비나 인력, 기술이 받쳐줘야 하는데 그런 기반이 부족한 나라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위성 데이터를 공유하는 걸 넘어 대기오염 데이터를 잘 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고 봐야 합니다.

> 한국이 아시아의 대기질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환경·과학 외교의 영역도 넓혀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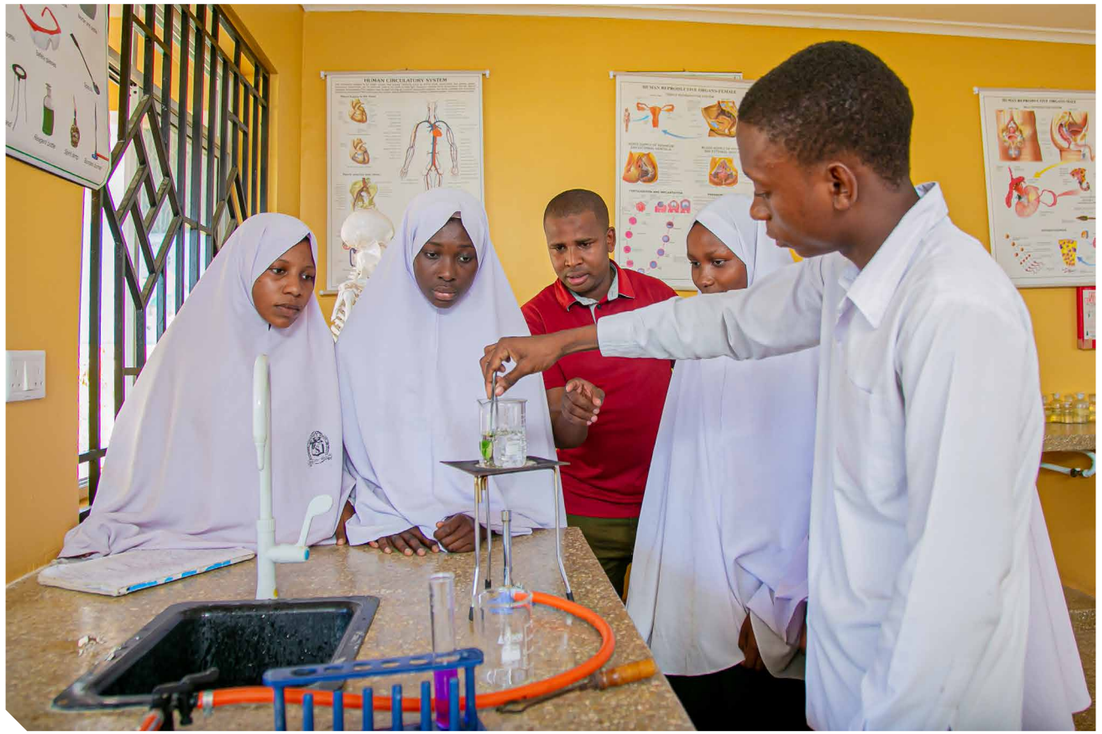
Q 한국이 구축한 이 플랫폼이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한국은 단순히 위성을 띄울 수 있는 기술만 갖춘 나라는 아닙니다. 대기질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고, 관련 데이터를 정책에 어떻게 연결할지에 대한 노하우도 축적돼 있어요. 이러한 역량 덕분에 아시아 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논의하는 정부 간 대화를 정례화하는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아시아의 대기질 관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환경·과학 외교의 영역도 넓혀가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Q 플랫폼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향후 발전 전략은 무엇인가요?

대기오염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아태 지역 국가들이 공동 대응하려면 국가별 대응 체계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장비 지원으로는 어려워요. 각국이 위성 데이터를 활용해 대기오염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 매뉴얼이나 학습 경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술뿐 아니라 인력 양성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틀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2022년 UNESCAP 회원국들이 채택한 '아태 대기오염에 관한 지역행동 프로그램(RAPAP, Regional Action Programme on Air Pollution)'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UNESCAP은 지난 3월에 RAPAP의 실행 기반이 되는 파트너십 및 조정 플랫폼을 출범했죠. 이 플랫폼은 앞으로 각국이 데이터를 공유하고 역량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겁니다. 이 플랫폼은 판도라 아시아 네트워크와 함께 아시아 전역의 대기오염 감시와 협력 대응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반이 될 거예요. K



• 코이카 사업을 통해 신축한 과학실험실과 실험실 기자재를 활용해 탄자니아 잔지바르 학생들이 실습하고 있다.

탄자니아 잔지바르 중등교육 통합적 교육 환경 개선 사업

학생, 교사는 물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 혁신 실험

탄자니아 잔지바르의 한 중등학교 교실. 몇 해 전만 해도 흙바닥과 낡은 책상, 손때 묻은 교과서들이 널려 있는 것이 이곳 풍경이었다. 이제는 학생들이 편히 공부할 수 있는 책상과 의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교육 환경, 실험 기자재로 채워졌다. 2018년부터 코이카에서 추진한 '중등교육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 교육 환경 개선 사업' 덕분이다. 2024년까지 7년간 1,000만 달러(약 1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이 사업은 교원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 인프라 개선,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 종합적 지원을 목표로 진행됐다. 단순히 학교를 짓거나 기자재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학생과 교사의 교육 방식을 바꾸는 데 집중한 것이다.

배움의 질 높이는 게 급선무

잔지바르의 중등교육 시스템은 오랫동안 학습 효과가 낮다는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현지 교사들의 교수법이 주입식 교육에 머물러 있고, 학생 중심의 참여형 수업이 부족했다. 코이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중심의 교육방법론 개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운영 ▲교원연수센터(Teacher Center)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다. 잔지바르 교육·직업훈련부 관계자는 "그동안 중등교육이 양적 확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수업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부족했다"라며 "코이카 프로젝트는 교사들이 실제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수법을 제공하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도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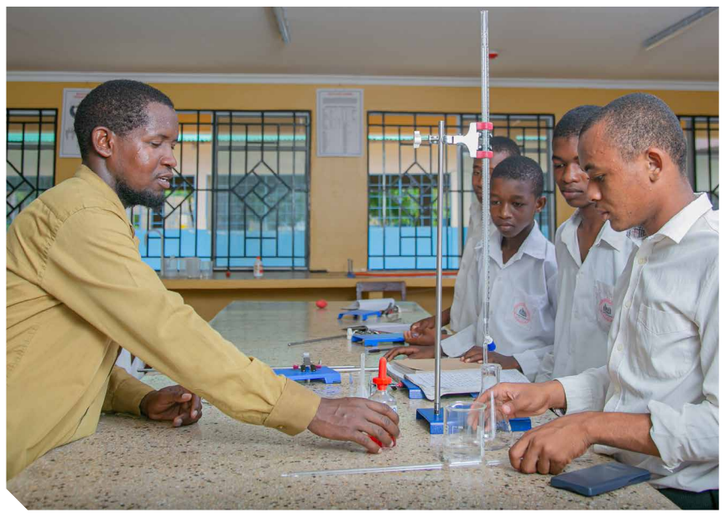
교사 연수는 프로젝트의 핵심 중 하나다. 기존의 주입식 교육을 탈피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 교육(learner-centered pedagogy)'을 도입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교원연수센터 10곳을 중심으로 1,000명이 넘는 교사들이 연수를 받았다. 연수를 통해 양성된 마스터 트레이너 40명과 리소스 트레이너 125명은 동료 교사에게 새로운 교수법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새롭게 다진 교육 인프라

열악한 학습 환경도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이었다. 낡고 부족한 교재, 실험 기자재가 없는 과학실, 교실 공간 부족 등은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떨어뜨린다. 코이카는 ▲중등학교 교수 환경 개선 ▲교원연수센터 인프라 보강 ▲과학실험실 및 ICT 교육 공간 조성 등을 목표로 환경 개선 사업을 벌였다.

코이카는 지금까지 20여 개 학교에 과학실험실, 도서관 등 시설을 정비하고 ICT를 활용한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 각 학교에 학습 기자재도 지원했다. 특히 학생들의 건강과 위생을 고려해 화장실과 위생시설(WASH) 인프라도 구축했다. 위생시설 마련으로 여학생들은 학교를 쉬지 않고 꾸준히 나올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발생한 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라디오를 활용한 교육방송을 실시하기도 했다. 코이카는 라디오 보급률(62.4%)이 TV 보급률(39.6%)에 비해 높아 대부분의 가정에 라디오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휴교령이 내려진 직후부터 잔지바르 교육부, 방송국과 함께 교육방송을 제작했다. 이어 2021년에는 태양광 라디오 충전시설과 태양광 라디오를 보급하기도 했다.



• 코이카의 잔지바르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한 교원이 학생들에게 과학 실험 기자재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다.



• 코이카가 잔지바르 교육 현장에 조성한 과학실험실.

학교 운영, 지역사회와 함께

교육의 변화는 교실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코이카는 지역사회도 교육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회(School Management Committee)를 활성화하는 데 집중했다. 학교가 단순히 교사와 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일부가 될 때 교육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들로 구성돼 학교 운영과 학생 교육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코이카는 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운영 모니터링 방법을 교육하고 '학교보고서(School Quality Report)'를 도입해 지역사회가 직접 학교의 교육 질을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환경 개선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며 "자녀들의 교육이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 사업을 통해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학생들의 성취도 향상이다. 잔지바르 기초교육은 12년 과정이다. 교육·직업훈련부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일반 중등학교(Form 1-4) 입학률은 74.4%로 11만 5,352명에 이른다. 사립학교 등록인원 8,628명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다. 다만 교육·직업훈련부의 시험 점수 분석 결과, 중등교육 졸업시험인 Form 4 시험 결과는 사립학교에 비해 공립학교의 시험 통과율이 현저히 떨어져 공교육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사업 결과, 대상 학교 중등 4학년의 영어, 수학, 과학 성취도가 크게 향상됐으며,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증가했다.

코이카는 학교 운영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정부 차원에서 지속하고 정책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탄자니아 정부와 협력해 학교보고서 시스템과 교원연수센터를 활용한 연수 프로그램을 잔지바르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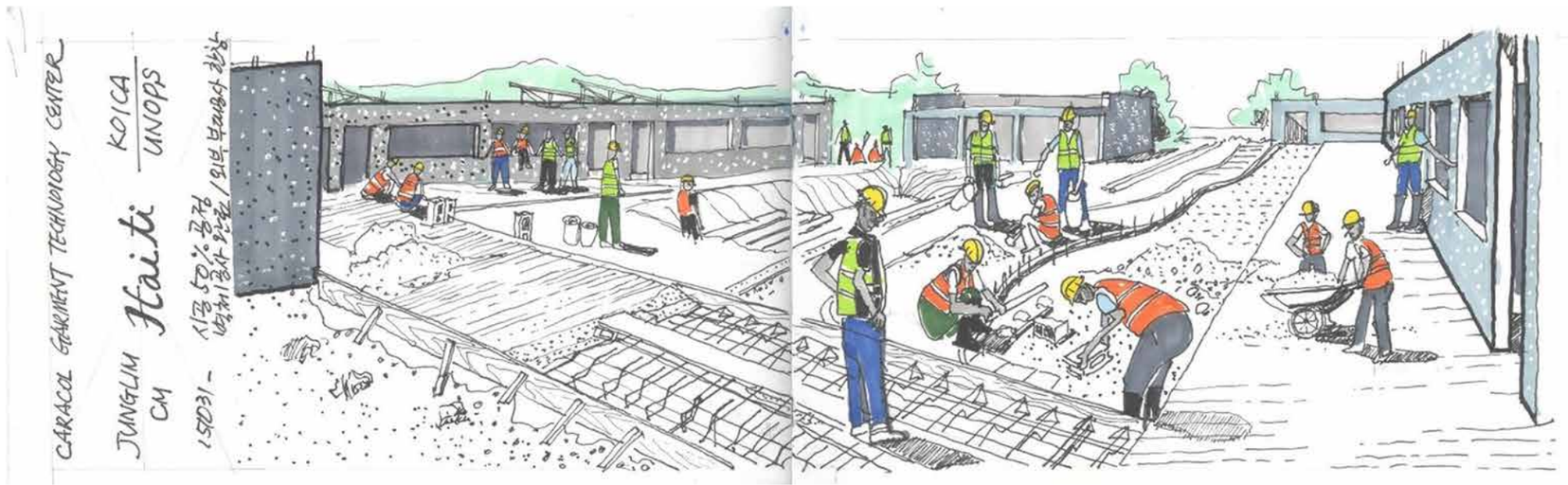
방명세 정림씨엠 대표 인터뷰

“ODA 사업 통한 건축은 사람 살리는 일”



• 방명세 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 대표는 20여 년 동안 ODA 사업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현장에서 작업한 필드스케치를 모아 첫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방명세 (주)정림씨엠건축사사무소(이하 정림씨엠) 대표는 코이카와 전 세계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보건소, 학교, 박물관 등 다양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 분야 ‘베테랑’이다. 정림씨엠이 2023년 정림건축에서 분사하기 전부터 코이카 사업에 참여해 온 방 대표는 20년 넘게 한결같이 코이카의 ODA 건축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일구고 있다. 그런 그가 불현듯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또 다른 시선-건축가 방명세의 필드스케치와 아카이브’라는 첫 개인 전시회를 열었다. 코이카 해외 출장 중에 보고 겪은 생생한 건축 현장의 풍경, 그 속의 사람들을 묘사한 스케치와 메모들을 모아 대중에 선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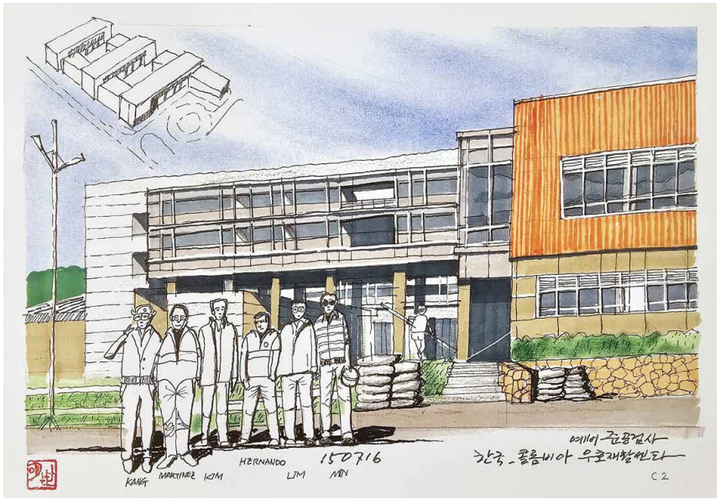
• 방명세 정림씨엠 대표가 전시회를 통해 선보인 작품. 아이티 까라꼴 의류기술 훈련원의 시공 50% 점검 과정 스케치

Q 첫 개인 전시회를 축하드립니다. 이번 전시회를 연 배경이 궁금합니다.

20년 전부터 해외 출장을 다니면서 수첩에 메모하고 스케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대부분 코이카 사업에 참여하며 현장에서 쓰고 그린 것들인데, 이 결과물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해서 차근차근 개인 전시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4,100m 고산지대 한 도시에서 병원을 짓는 ODA 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프로젝트 현장 관계자분들에게 회의하는 모습을 스케치해서 보여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이 스케치들이 코이카에 정말 의미 있는 결과물이겠구나 싶었습니다.

Q 개발도상국을 돕는 코이카 ODA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건강한 공간 환경을 조성해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게 우리 회사의 미션이에요.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만큼 경제적 이익도 고려해야 하지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사회적 기여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방향은 유지할 생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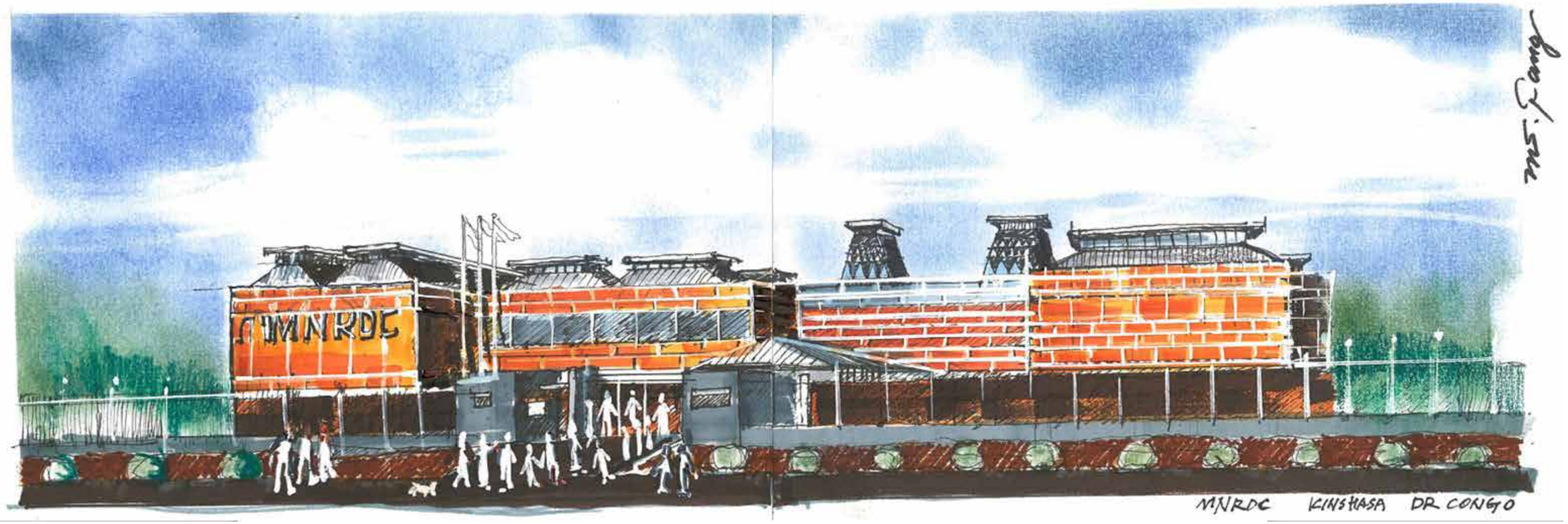
• 방명세 정림씨엠 대표가 전시회를 통해 선보인 작품. 예비준공검사를 앞둔 한국-콜롬비아 우호재활센터 스케치

Q 코이카와 함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시설을 지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축물은 무엇인가요?

그동안 아이티 같은 중남미 지역부터 중동, 북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을 다녔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건물들은 모두 그 지역 사람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뽑기가 너무 어렵네요. 예를 들어 콜롬비아에서는 ‘한-콜 우호재활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전쟁 파병국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힘들 때 도와준 나라인 만큼 이제 우리가 그들을 도울 차례가 된 거죠. 많이 아시는 것처럼 콜롬비아는 치안이 좋지 못해요. 현지 군인과 경찰들은 거대 범죄조직과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이 흔합니다.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하고 범죄조직이 심어둔 지뢰에 군인과 경찰들이 팔다리를 잃기도 합니다. 한-콜 우호재활센터는 범죄조직과 싸우다가 부상당한 현지 군인과 경찰을 치료하고 재활 훈련을 돕는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그들은 수영, 태권도, 펜싱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삶의 희망을 찾기도 합니다. 센터에서 재활하며 웃음을 찾는 군인과 경찰들을 볼 때면 우리가 하는 일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이번 전시회에도 한-콜 우호재활센터 현장 스케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Q 파라과이에서도 뜻깊은 사업에 참여했다고 들었어요.

파라과이에서도 여러 사업에 참여했는데,



• 방명세 정림씨엠 대표의 DR콩고 박물관 스케치. 박물관으로 개관한 이곳은 현재 아프리카 정상회담 등 국빈 행사도 열리고 학생들 체험교육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중 하나는 수도 아순시온 근처 국제공항 내에 한국의 항공 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항공훈련센터를 지은 것입니다. 파라과이는 중남미의 대표적 내륙국가로, 바다가 없어 교역도 힘들고 경제도 주변 국가들에 비해 발전이 더딘 편입니다. 그래서 내륙국가는 비행기 조종사나 정비사 같은 항공 기술 인재가 절실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참여한 파라과이의 항공훈련센터는 한국의 항공 기술을 전수하는 곳으로 현지의 항공 교육 인프라 개선에 큰 도움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파라과이에서 또 잊을 수 없는 사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혼란스러웠을 당시 의료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센트럴주 림삐오시에 보건소를 지었던 일입니다. 이 지역은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조차 받기 힘든 곳이라 보건소 건립이 절실했어요. 팬데믹으로 작업이 쉽지 않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무려 20개의 보건시설을 지어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습니다.



• 첫 개인 전시회 '또 다른 시선-건축가 방명세의 필드스케치와 아카이브'에서 자신의 작품들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한 방명세 정림씨엠 대표

Q 외국에서 하는 건축 작업은 국내 작업 환경과 크게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건축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어 빠르고 쉽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그런 인프라가 전혀 구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건축 자재 문제, 현지인들과의 의사소통 문제 등 도전적인 상황에 자주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티에서 봉제직업훈련원을 지을 때는 다른 국제기구들과도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했던 상황이라 커뮤니케이션 단계에서도 시간 지연이 잦았고 의견 조율도 쉽지 않아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Q 개발도상국에서 건물을 지을 때 건축미와 실용성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궁금합니다.

건물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짓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그 지역 문화와 기후에 맞는 디자인을 갖춘다면 더 훌륭한 시설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DR콩고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을 지을 때 아프리카 기후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콩고만의 정체성이 묻어나는 디자인을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Q 이번 전시회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었나요?

우선 해외 오지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의미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ODA 사업이나 코이카 사업을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조금 더 알리고 싶었어요. 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정림씨엠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설계자, 코이카 직원분들, 그리고 관계 전문가들 모두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갖는 건 정말 중요하니까요.

Q ODA 사업에 진출하려는 건축 분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ODA 사업에 참여하며 건축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잘 지은 건물은 생명선과도 같아요. 아이티에 지은 건물에 한국의료봉사단이 왔을 때 제가 스케치한 그림이 있는데요. 봉사단이 일주일 동안 있을 때 약 3,000명의 환자가 왔어요. 하루에 환자가 500명씩 오는 상황에서 그 작은 건물이 정말 큰 역할을 한 것이죠. 결국 건축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는 일임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Q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20년간 기록했던 출장 수첩, 스토리북, 필드스케치를 모아서 책으로 묶어보려고 합니다. 올겨울이나 내년 봄쯤 발간하는 게 목표입니다. K

숨 솜닝 코이카 캄보디아사무소 현지 직원 기고

캄보디아와 한국 잇는 다리



• 2023년 코이카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160기 수료식에 참석한 숨 솜닝 코이카 캄보디아사무소 현지 직원(오른쪽 첫 번째)

한국에서 일하다 금의환향한 이주노동자의 성공 스토리는 이제 꽤 흔한 이야기가 됐다. 나의 고국 캄보디아 역시 예외가 아니다. 내 주변에도 한국에서 번 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캄보디아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가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2014년, 나 또한 크나큰 포부를 안고 처음 한국 땅을 밟았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나는 경기도와 인천 지역의 전기공장과 식품공장 등에서 일했다. 운이 좋아 공장에서 좋은 분을 많이 만났다. 사장님은 인품이 좋으셨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친절해 낯선 타국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일할 수 있었다. 5년 뒤 취업비자가 만료되어 캄보디아로 돌아와야 했다. 나는 아쉬웠지만 한국의 따뜻한 정을 생각하며 꼭 다시 가리라 다짐했다. 그 다짐을 잊지 않고 캄보디아에 돌아와서도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다. 덕분에 내겐 다시 한국에 갈 기회가 생겼다. 부천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게 다시 간 한국은 여전히 따뜻한 곳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며 한국을 보고 느낀 2년여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남아있다. 오래오래 한국에 머물고 싶었지만 집안에 갑작스레 일이 생겨 결국 공부를 중단하고 캄보디아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 땐 너무나 슬펐다.

갑자기 계획이 틀어져 앞이 깜깜하고 막막했다. 한국에서 이루리라 다짐했던 꿈도 물 건너가고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다. 그러던 중 아는 사람에게 '코이카'에 대해 듣게 되었다. 코이카는 한국의 공공기관으로 캄보디아에 사무소를 두고 한국인 직원을 파견해 여러 분야에서 도움을 준다고 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한국에 갔는데 그들은 편안한 한국 생활을 뒤로하고 캄보디아를 돕기 위해 오다니! 놀라움과 동시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코이카 캄보디아사무소에 지원해 2022년 말에 입사한 나는 벌써 3년째 현지 직원으로 근무 중이다. 코이카 해외사무소에는 한국인 직원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사정을 잘 아는 현지 직원들도 함께 일한다. 캄보디아사무소에는 나를 비롯해 13명의 현지 직원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사무소의 경우 교육, 보건, 농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35개 사업을 진행 중이어서 현지 직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중에서도 일반봉사단 20명과 중기봉사단 52명이 캄보디아의 낯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나의 핵심 업무다. 예를 들어 비자 발급, 은행 계좌 개설, 휴대폰 개통 등 현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단짝친구처럼 옆에 붙어서 꼼꼼히 챙기고 있다. 한국에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내가 한국인들을 도울 수 있어 뿌듯하다.

여기서 내가 만난 봉사단원들은 IT 기술자부터 교사까지 직업도 성격도 정말 다양하다. '내가 가진 재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라는 일념으로 내 나라 캄보디아에 와준 한국인들이 참 고맙다. 그래서 나는 이들이 현지 문화를 쉽게 이해하도록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내가 다니는 왕립 프놈펜대학교의 한국어학과 교수님께 캄보디아의 명절, 예절, 언어, 사회적 특징 등을 주제로 매달 강의를 요청해 '캄보디아 문화 이해 세션'이라는 강좌를 진행했다. 나도 한국에 처음 갔을 때 예의범절, 생활습관 등을 몰라 당황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양국의 문화를 모두 아는 교수님이 두 나라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해 준 덕분에 봉사단원들은 빠르게 캄보디아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다. 강의뿐 아니라 문화유적지 방문, 캄보디아 음식 만들기 등 여러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단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유익한 강좌를 마련해줘서 캄보디아 생활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고마워하는 단원들을 보면서 나 또한 기뻤다.

현지 곳곳에서 활동하던 봉사단원들은 사무소에 방문할 때마다 꼭 나를 찾아와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빼놓지 않는다. 그때마다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행복하다. 또한 그들은 내 나라 캄보디아를 누구보다 사랑해 준다. 내가 한국을 사랑하는 만큼 캄보디아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너무 멋진 일 아닌가?



• 코이카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160기의 문화탐방 현장

지난해부터 나는 이들에게 더 큰 도움을 주고자 왕립 프놈펜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진학했다. 봉사단 업무 외에 비자, 세금 등 행정 업무까지 지원하면서 학업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국어가 더 능숙해지면 단원들의 어려움을 지금보다 신속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부족한 시간을 쪼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졸업 후 가능하다면 한국에 석사과정을 밟으러 가고 싶다.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해 한국과 캄보디아를 위해서 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번 돈으로 땅도 사고 건물도 산 사람들이 이제는 부럽지 않다. 큰돈을 가진 부자보다 양국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내가 느끼는 자부심이 더 크기 때문이다.



• 2024년 열린 캄보디아 연수생동창회(CAMKAA)와 월드프렌즈코리아(WFK) 봉사단이 함께한 사회공헌활동 현장



• 코이카 연수센터 라운지에서 프랑스 ODA를 소개하는 알렉산더 무투 주한 프랑스대사관 정무참사관

프랑스대사관 직원이 들려주는 프랑스의 ODA

공적개발원조는 인류 공동의 문제 해결하는 연대 방식

주한 프랑스대사관이 지난 4월 2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연수센터 라운지에서 프랑스의 ODA(공적개발원조) 전략을 공유했다. 발표자로 나선 주한 프랑스대사관의 알렉산더 무투(Alexander Mootoo) 정무참사관은 프랑스 ODA의 변화 과정과 향후 계획 등을 조목조목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의 핵심 주제는 '기후'였다. 프랑스는 이제 ODA를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닌,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과 손잡고 함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조하며, 양국 간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다음은 발표 내용이다.

도움에서 동행으로, 프랑스의 ODA

예전엔 ODA라 하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일방적으로 돕는 일로 여겨졌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금을 보내고, 도로를 깔고,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이었다. 도움을 주는 나라와 받는 나라 사이에는 분명한 위계가 있었고, ODA는 그런 구조를 기반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지금 프랑스가 말하는 ODA는 이와는 조금 다르다. 프랑스는 원조를 '은혜 베푸는 행위'가 아니라 '책임 있는 동행'의 일부로 보고 있다. '도움'이라는 단어보다 '책임' '전략' 같은 표현이 앞에 놓이는 이유다.

프랑스는 현재 ODA를 통해 전 지구적 과제를 함께 설계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구조를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프랑스는 2023년 기준 약 150억 달러 규모의 ODA를 집행하며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원조를 제공한 국가가 됐다. 하지만 숫자만으로 프랑스 ODA를 설명할 수는 없다.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프랑스는 단지 예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ODA의 방향 자체를 전환했다.

과거엔 인프라 개발이 ODA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재생에너지, 기후 적응, 탄소 감축, 물 관리 같은 환경 기반 분야로 초점이 이동했다. 프랑스가 단순히 건설 장비를 보내는 나라가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기획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는 셈이다.

> 과거에 프랑스는 인프라 개발이 ODA의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재생에너지, 기후 적응, 탄소 감축, 물 관리 같은 환경 기반 분야로 초점이 이동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2025년까지 매년 65억 달러 이상의 기후 관련 ODA를 제공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고 이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됐다. 현재 프랑스가 집행하는 기후 ODA의 약 60%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완화' 프로젝트에, 나머지 40%는 홍수, 가뭄 등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적응' 프로젝트에 투입되고 있다.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국제적인 기후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ODA의 성격을 재정의한 셈이다.

집행 방식에서도 프랑스는 다른 공여국과 구별된다. 프랑스의 기후 ODA 가운데 90% 이상은 양자 간, 즉 개별 수원국과 직접 계약을 맺는 형태로 운영된다. 이는 다자기구(IMF, 세계은행, EU 등)를 통한 기여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ODA의 주도권을 파트너 국가와 공유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ODA 방향성을 드러낸다. 사업의 설계 초기부터 수원국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실행 전략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나이지리아에서 진행한 '쿨복스(Koolboks)' 프로젝트다. 이는 전력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농촌 지역에 태양열로 작동하는 냉장고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냉장고는 햇빛이 없을 때도 최대 4일 이상 냉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식품과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보관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보건 환경이 모두 개선됐다. 이 프로젝트는 약 6만 명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고, 기존 디젤 냉장고에 비해 탄소 배출량도 90% 이상 줄였다. 동시에 약 70개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며 경제적 파급 효과도 만들었다.

기술, 환경, 경제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이 구조는 프랑스가 말하는 ODA의 미래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단순한 공급자가 아니라 생존과 자립의 조건을 공동으로 설계하는 파트너, 프랑스는 그 역할을 실제 사업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

함께 책임지는 시대의 외교

이번 발표를 통해 프랑스는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알렉산더 무투 정무참사관은 "프랑스와 한국은 성장의 궤적은 다르지만, 지금은 국제사회에서 비슷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개발과 번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두 나라 모두 잘 알고 있다. 그 점에서 한국은 매우 흥미로운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한국을 '함께할 수 있는 나라'로 보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은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독특한 경험을 지닌 국가이며, 최근 들어 기후와 그린 ODA에 관한 관심도 크게 높아졌다. 프랑스는 코이카와의 협력 가능성을 넓혀 가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전략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공동 분야를 중심으로 더욱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어떤 국가도 개발과 지구 보호 사이에서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프랑스는 이 말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삼는다. 기후위기에 맞서 기술과 재정을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려는 이 시도는 이제 ODA의 정의를 바꾸고 있다. ODA는 더 이상 단순한 나눔이 아니라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연대의 방식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연대의 다음 페이지를 프랑스는 한국과 함께 써 내려가고자 한다.



• 프랑스 ODA 전략을 소개하기 위해 코이카 본부에 방문한 알렉산더 무투 주한 프랑스대사관 정무참사관(오른쪽 세 번째)이 코이카와 프랑스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Mini Interview

“한국은 ODA 확대 의지가 강한 나라”



알렉산더 무투
주한 프랑스대사관 정무참사관

Q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 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나요?
우리는 주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이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저소득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예전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담당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자문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마닐라의 극심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 모빌리티 개선에 친환경 요소를 더한 프로젝트도 진행했죠.

Q 최근 미국이 ODA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기대가 궁금합니다.
미국의 결정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제사회에 미칠 영향도 크고요. 저희는 이런 흐름 속에서 유럽,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파트너가 함께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ODA 확대에 대한 의지가 강한 나라이고,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협력 대상입니다. 프랑스 역시 전문성과 자금을 갖추고 있는 만큼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알렉산더 무투 주한 프랑스대사관 정무참사관이 프랑스대사관 직원들과 함께 코이카 개발협력 전시관을 방문했다.

Q 프랑스 ODA는 아프리카에 중점을 두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린 ODA와 관련해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비중이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네,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지역, 그리고 배출 감축의 여지가 큰 지역이 어디인지 살펴보면 답이 보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개발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10년 안에 아시아 전체 배출량이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더 많은 기후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Q 한국의 녹색기술 기업들도 프랑스 ODA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프랑스 ODA는 비구속성 원칙을 따릅니다.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지 않고, 모든 프로젝트는 공개 입찰을 통해 진행합니다. 프랑스 기업뿐 아니라 한국, 일본,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이 참여할 수 있고, 실제로도 다양한 국적의 기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Q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ODA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저희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프랑스 의회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ODA 관련 예산을 최종 집행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파트너 국가들이 탄소 중립적 경로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ODA는 단지 원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프랑스의 무역·투자 기회로도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수단입니다. 세네갈 같은 사례를 보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Q ODA에 회의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나요?
우리는 여러 부처에서 매년 분야별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소셜미디어나 다양한 언어 채널을 통해 대중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소통이 눈덩이처럼 쌓여 국민의 신뢰를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상원의원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우리의 활동이 외교 정책이나 국가 발전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K

한눈에 보는 코이카 최신 이슈

KOICA NEWS 모아보기

1월



대인도 첫 양자 국별협력 프로젝트 시작
코이카가 지난 1월 20일(현지 시각) 인도 뉴델리 재무부 청사에서 한국-인도 간 개발협력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교환각서에 서명했다. 이번 각서는 인도 정부가 한국 정부에 대해 ▲사업 관련 파견 인력의 인도 내 활동 보장 ▲면세 통관 ▲면책 인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코이카는 올해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 강화 사업(2025~2027년/200만 달러)’을 착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인도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며, 특히 중등 직업기술교육에 메카트로닉스 공과를 시범 도입해 궁극적으로 한국의 마이스터 고등학교 모델을 인도와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코이카는 향후 인도 국립공과대 전문학사과정 설립 및 조선·항만 분야 직업훈련원 사업 발굴 검토 등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호 호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 맞춤형 프로젝트 봉사단’ 1기 파견
코이카가 청년들의 해외봉사 참여 문턱을 낮추고 일 경험 기회를 강화한 ‘청년 맞춤형 프로젝트 봉사단’을 지난 1월 25일 최초 파견했다. 이번 봉사단은 기존 장기 봉사단에 프로젝트 봉사단을 추가한 이원화 형태로 프로그램을 개편했다. 기존 장기 봉사단은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증을 기본 요건으로 선발해 1년 이상 파견됐다.
‘2024년 개편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은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활동 기간도 최대 5개월로 단축해 학업 중인 대학생도 장기 휴학 없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주어진 과업을 협력해 수행하고 성과를 평가받는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이번 프로젝트 봉사단 1기는 파라과이, 우즈베키스탄, 르완다 등 총 8개국에 순차적으로 파견돼 교육일반, 국제개발, 지역개발,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4년 대한민국 ESG 경영 혁신대상 ‘최우수상’
코이카가 ‘2024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에서 사회(S)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코이카는 전년도 일자리 창출과 동반성장 성과를 높게 인정받아, 대한민국 ESG경영 혁신대상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일자리 측면에서 코이카는 ‘2021~2025년 전사 일자리 전략’에 따라 2023년 총 1만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법’ 특례조항을 신설해 취약계층이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해외봉사단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문을 넓혔다. 동반성장 측면에서는 2023년 중소기업 수주액이 전년 대비 42%, 상생결제액이 31% 증가했다. 또한, 혁신제품 보유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지원도 573% 확대해 협력 중소기업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수주 실적 212만 달러 달성에 기여했다.

‘국민 관점’으로 54개 내규 재정비
코이카는 ODA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 참여자인 국민의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사업 관리 내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정비했다. 이번 정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ODA 사업 추진을 위한 총 54개의 사업관리 내규를 대상으로 ▲규정 간 정합성 ▲규정의 법령 적합성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시행했다.
코이카는 ODA 사업 용역비 산정, 지급, 정산 기준을 단일 규정으로 통합하고,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내규를 폐지해 사업 참여자의 업무 편의성을 강화했다. 또한 전문가 직접인건비를 매년 인상하고, 해외사무소 인턴(영프로페셔널, YP)과 청년중기봉사단의 근무 환경과 복지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질적 제도 개선을 실시했다.
개정된 내규의 상세한 정보는 코이카 홈페이지(www.koica.go.kr) - 윤리준법경영 - 반부패·청렴자료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월



우간다에 2년간 청년봉사단 100명 파견 착수

코이카가 지난 2월부터 우간다 중부 음피지(Mpigi), 미티야나(Mityana) 지역에서 '우간다 지방정부 사업성과 관리 개선을 위한 IT 역량 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을 착수했다. 이 사업을 위해 파견하는 '2024년 개편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은 '팀'을 구성해 글로벌 과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를 기획 및 시행한다.
특히 이번 봉사단 사업은 코이카 우간다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간다 지속 가능한 농촌개발을 위한 수행 역량 강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점에서 국별협력 사업을 성공으로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데이터기반행정 3년 연속 최고등급

코이카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에서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서 코이카는 총점 97점을 획득, 수검기관 평균점수 59.5점을 크게 웃돌았다.
코이카는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 및 정책 활용 ▲데이터 공동 활용 실적 ▲데이터 역량 및 문화 ▲전담부서 운영 등 관리기반 전 평가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코이카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 역량 진단을 통한 직급·역량별 맞춤형 데이터 교육을 실시하고, 데이터 분석-정책 우수사례 공유, 분석 활용 가이드 제작 등 데이터로 일하는 문화를 조성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코이카-한국산업기술진흥원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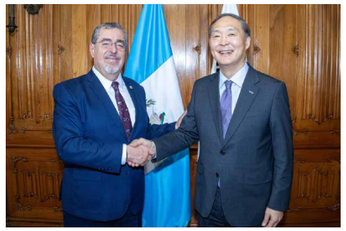
코이카는 지난 2월 14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본부에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개발도상국 기술·환경·에너지 분야의 무상 ODA(공적개발원조)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무상 ODA 사업의 성과와 품질을 제고하고, 개발도상국의 산업 개발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기술·환경·에너지 분야 무상 ODA 사업의 발굴, 시행 및 평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반영한 지식교류 활성화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연구, 정보 공유, 홍보 협력 등이다. 특히 ▲기술 협력(국제 표준화 기술 지원 등) ▲산업인재 양성(조선, 섬유) ▲혁신적 농촌공동체 조성 등의 분야에서 두 기관 사이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최초 '에듀테크 서밋'에서 K-혁신기술 알리다

코이카가 지난 2월 17~18일 이틀간 캄보디아 국립공과대학(Institute of Technology of Cambodia)에서 열린 '제1회 캄보디아 에듀테크 서밋(The First Cambodia EdTech Summit)'에서 우리 정부의 디지털 교육 무상 개발협력 사업과 한국의 혁신적인 에듀테크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을 소개했다.
행사에서 코이카는 최문정 캄보디아사무소장의 환영사, 패널 토의 참여, 홍보 부스 운영 등을 통해 한국 정부의 디지털 교육 분야 ODA 사업을 소개하고, 코이카의 대표 기업협력 사업인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IBS)'에 참여하는 에듀테크 기업 3개사(㈜이엠캐스트, ㈜비상교육, ㈜에누마코리아)를 홍보했다.

3월



장원삼 이사장, 중남미 4개국 순방

장원삼 코이카 이사장은 지난 3월 2~13일 멕시코, 과테말라, 콜롬비아, 페루를 방문해 각국 정부 인사들과 개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ODA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멕시코에서는 국제개발협력청(AMEXCID)과 삼각협력 및 개발협력 강화를 논의하고, 믹타(MIKTA) 회의 참석을 요청했다. 과테말라에서는 베르나르도 아레발로 대통령과 만나 경제 발전 및 인프라 협력을 논의하고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했다.
콜롬비아에서는 국제협력청(APC)과 무상원조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삼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페루에서는 코이카의 폐기물 관리 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이민청 출입국 행정서비스 개선 사업 협의의사록을 체결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코이카는 중남미 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ODA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개발협력 범위를 중미·카리브 지역까지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 성황리 개최

코이카는 지난 3월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개발협력 참여전략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1부에서는 '한국 ODA 유무상 개발협력사업 참여 방안'을 주제로 ▲코이카 ODA 조달 참여 방안 및 2025년 발주계획 ▲코이카 기업협력프로그램 공모 참여 방안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ODA 조달사업 참여 방안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글로벌 ODA 진출전략 및 우수사례 소개'를 주제로 ▲글로벌 ODA 기업진출전략 및 다자개발은행(MDB) 한국 신탁기금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사업 참여방안 ▲글로벌 ODA 사업 참여를 통한 우리 기업 해외 진출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행사장 밖에는 홍보 및 상담 부스가 마련됐으며, 12일에는 코이카 해외사무소장과의 온라인 컨설팅도 운영했다.



수출입은행과 우간다 마케레레대학교 교육환경 혁신 착수

코이카는 지난 2월 28일, 우간다 마케레레대학교에서 '원격교육 환경 조성 사업' 착수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코이카가 우간다 고등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원격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총 1,220만 달러를 투입하는 ODA 프로젝트다.
이번 사업은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약 1억 6,200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제공해 '우간다 마케레레대학 교육개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코이카가 디지털 교육과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맡아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이 유상원조를 통해 인프라를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한다. 이를 통해 유무상 원조 연계의 복합 시너지가 발휘될 것으로 기대한다.



웹드라마 '개발남녀' 2024 앤어워드 디지털 광고 & 캠페인 부문 '위너' 수상

코이카가 제작한 웹드라마 '개발남녀'가 '2024 앤어워드(A.N.D Award)' 디지털 광고 & 캠페인 부문에서 '위너(Winner)'를 수상했다. 작년 10월 코이카가 공개한 2편짜리 웹드라마 '개발남녀'는 국제개발협력과 IT 분야에 종사하는 소개팅 남녀 간 '개발'에 대한 해석 차이로 벌어지는 해프닝을 풀어낸 로맨틱 코미디로, 공개 일주일 만에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조회 수 175만 회를 기록했다. '개발남녀'는 웹드라마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자연스럽게 코이카와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업무를 홍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코이카는 지난 2월 '피코(PeKO) 평화의 숲' 팝업스토어로 '2024 대한민국 팝업스토어 어워즈' 캐릭터/웹툰/애니메이션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코이카의 캐릭터 피코가 비밀의 정원에 손님을 초대한다는 콘셉트로 꾸며진 '피코 평화의 숲'은 평화와 국제개발협력의 가치를 자연스레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4~5월



‘K-날개’ 달고… 캄보디아, 항공 교육 강국으로 비상

캄보디아 내 항공산업 발전이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가 ‘K-항공 교육’ 노하우를 전수한다.

2023년 시엠립(Siem Reap), 2024년 코콩(Koh Kong) 신공항에 이어 올해 말 프놈펜 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항공 인프라 확충에 힘을 쏟고 있는 캄보디아가 해당 분야에서 더욱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코이카는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200만 달러(약 165억 원)를 투입해 민간항공청 산하기관으로 관제사, 공항 운영 등 항공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민간항공교육원’의 전문성 및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항공 교육 허브 기관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 공인 교육기관(ICAO TrainAIR Plus) 인증 컨설팅 및 교육과정 개발 ▲관리자 및 교원 역량 강화 ▲신축 건물 및 기존 건물 개보수 ▲실습 기자재 및 항공 보안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6년 연속 ‘최고’ 등급 선정

코이카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6년 연속 최상위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등 679개 기관 대상으로 3개 영역 11개 지표를 평가했다. 코이카는 총점 96.29점으로 ▲개방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시책 노력 ▲보유 데이터 품질 관리 등 3개 영역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획득하며 수검기관 평균 점수인 63점을 크게 웃돌았다.

특히 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 공유 민간 설명회, 데이터 활용 유경험자 대상 심층 인터뷰,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등 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 노력이 인정됐다. 이처럼 코이카는 연간 2조 원 규모의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과 관련한 데이터를 한국 국민과 기업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조달청과 ODA 조달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코이카와 조달청이 국내 ODA 조달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간다. 코이카는 조달청과 지난 4월 18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코이카 본부에서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전환 협력 및 대외 무상원조 사업 참여 지원 대상 정부조달 물품의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2018년부터 업무협약을 맺고 ODA·조달 분야 전문 정보 공유와 인적 교류를 통해 정부조달 제품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자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이번에 갱신한 업무협약에는 ▲차세대 나라장터 이용 전환 협력 ▲대외 무상원조 사업 참여 정부조달 제품의 확대(정부조달 문화상품 추가) ▲혁신장터 ODA 물품관 및 조달청 평가위원 분야 내 개발협력 분야 신설 ▲코이카 기술평가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 등 각 기관의 역량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

코이카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134개 공공기관 대상 2024년 동반성장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코이카는 동반성장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47개 해외 사무소와 국내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또한 전년 대비 20% 증가한 9.4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 기금을 마련해 스마트공장 구축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또한 지방 기업의 기회 확대를 위해 지자체 및 주요 공공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ODA 사업 참여를 위한 중소기업 우대제도도 확대했다.

특히 ‘수출선도형 혁신제품 시범구매 지원 사업’을 통해 제품의 해외 실증을 지원하며 요르단, 모잠비크 등 19개국에 시각장애인 학습기기, 투척용 소화기 등을 제공해 총 230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이끌어냈다. 올해는 4.5억 원 규모의 ‘자체발굴 수출선도형 혁신제품 지원 사업’을 통해 현지 수요 발굴부터 제품 구매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파라과이사무소, 파라과이 국회 공로상 수상

개소 30주년을 맞은 코이카 파라과이사무소가 지난 4월 22일(현지 시각) 파라과이 국회로부터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라스 레지덴타스(Las Residentas)’ 공로상을 받았다.

코이카는 1993년 벽촌 식수공급 사업을 시작으로 파라과이와 협력을 맺었다. 1995년에는 코이카 파라과이사무소를 정식 개소했다. 이후 코이카는 파라과이를 중남미 중점협력국으로 지정해 현재까지 총 1억 8,226만 달러(약 2,116억 원)를 지원했다. 또한 30년간 300개 이상 기관에 1,218명의 봉사단원을 파견하고, 파라과이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국의 기술과 시스템을 전수하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최근에는 파라과이 정부의 수요와 한국의 강점을 결합한 디지털 파트너십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행정을 현대화하고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함으로써 동반 성장의 길을 만들고 있다.



베트남 조선 용접 분야 ‘산업 인재 양성’ 첫 수료생 배출

코이카가 지난 4월 25일(현지 시각) 베트남 응에안성 한-베트남 산업기술대학교에서 ‘조선 용접 산업 인재 양성 과정’ 수료식을 열고 53명의 인재를 배출했다.

코이카는 ‘베트남 전쟁 피해 집중 지역 취약계층 및 청년층 취업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2023~2029년 1,200만 달러)’으로 개발도상국에 기술학교를 설립해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코이카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HD현대중공업 계열사 3개(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 HD현대삼호) 및 울산광역시, 울산대학교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한국의 조선 용접 전문가는 베트남 응에안성 한-베트남 산업기술대학교에 파견돼 2027년까지 3년간 총 440명을 교육한다. 현지 기술 강사들은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수료생의 경우 국내외 조선 관련 산업 현장에서의 취업 기회를 얻는다. 코이카는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협력국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팔레스타인 통합 재활치료센터 개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주민들이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코이카는 지난 5월 6일(현지 시각)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지구에 있는 라말라(Ramallah)와 쿼바티야(Qabatiya) 2개 도시에 각각 ‘재활치료센터’를 열었다. 신체·정서·언어 등 다양한 장애를 아우르는 서안지구 최초의 통합적인 재활치료센터다. 재활치료센터에는 작업치료실, 물리치료실, 언어치료실, 정신건강 상담실 등을 마련했다. VR 기반 보행·균형 훈련 시스템, 인지 재활에 활용되는 3D 인터랙티브 장비 등 현대적인 시설도 갖췄다.

이번 재활치료센터 개소는 코이카가 세계보건기구(WHO)와 손잡고 2021년부터 추진 중인 ‘팔레스타인 서안지구 공공 재활치료센터 건립 및 역량 강화 사업’의 결과물 중 하나다. 코이카는 사업을 통해 시설 지원 외에도 현지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을 실시해 의료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센터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진행해 센터 운용에도 도움을 주었다.



유엔난민기구와 KDRT 예비대원 현장안전훈련 실시

코이카가 유엔난민기구(UNHCR)와 지난 4월 21일부터 25일(현지 시각)까지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orea Disaster Relief Team, 이하 KDRT) 예비대원을 대상으로 태국 후아힌(Hua Hin)에서 ‘현장안전훈련(Safety in Field)’을 실시했다.

코이카,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소속 KDRT 예비대원 총 22명이 참가한 이번 훈련은 인도적 재난 현장에서 필요한 안전 지식 함양 및 긴급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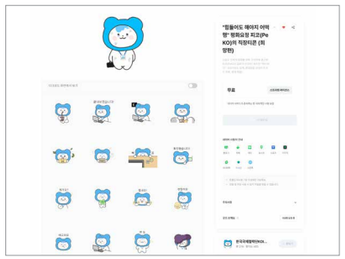
KDRT 예비대원인 허진복 코이카 긴급대응팀 대리는 “이번 훈련은 이국적인 현장에서 실습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파견 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긴급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체험해 볼 수 있어서 더욱 뜻깊었다”고 평가했다.

6월



라오스 북부에 '통합 모자보건·영양교육센터' 개소

지난 6월 3일 라오스 북부 루앙남타주 주립병원 내 '통합모자보건 영양교육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센터는 라오스 북부 지역 최초 및 유일 영양교육 전문시설로 급성영양실조 통합관리(IMAM), 모유수유 및 영양상담, 조산사 및 보건인력 교육을 아우르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가 설립된 루앙남타주는 소수민족 비율이 72.2%로 국가 평균(34.2%) 대비 2배 이상에 달하며, 다양한 문화 및 언어 차이 등으로 인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 밀집 지역이다. 이에 코이카는 모자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여성, 소수민족, 산간지역 주민 등 의료 소외계층을 포함한 포용적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본 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조산사 양성 , 모자보건 및 영양교육, 지역사회 기반 영양 아웃리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영유아 사망률, 모성사망비, 아동 영양실조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



'피코' 새 이모티콘 24종 무료 배포

코이카가 기관 소통 캐릭터 피코(PeKO) 특유의 '무해한 매력'을 담은 신규 이모티콘 24종을 제작, 네이버 OGQ 마켓을 통해 6월 26일부터 네이버 스티커로 무료 배포(다운로드 링크: https://naver.me/FNijURSX)하고 있다.
2023년 24가지 일상·감정을 담아 처음 출시한 '평화요정 피코의 일상티콘'에 이어 두 번째다. '힘들어도 해야지 어떡행-평화요정 피코(PeKO)의 직장티콘(희망편)'이란 이름의 새 이모티콘은 '무한 긍정과 열정의 직장인 피코'가 콘셉트다. 직장 생활과 일상에서 흔히 마주치는 상황과 감정을 위트 있게 표현해 직장인뿐 아니라 다양한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다.
피코 이모티콘은 네이버 블로그, 카페 등 OGQ 마켓과 연동된 네이버 서비스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피코' 또는 '코이카'를 검색하면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코이카 계정을 '팬 등록'하면 향후 업데이트되는 신규 이모티콘을 가장 먼저 받아볼 수 있다.



프로젝트 봉사단 1기 활동 결과 발표회 개최

코이카가 지난 6월 4일 코이카 본부에서 '코이카 프로젝트 봉사단 1기 결과 발표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파라과이, 캄보디아, 르완다 등 총 8개 개발도상국에서 해외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프로젝트 봉사단 1기 8개팀(총 87명)이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프로그램의 더 나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귀국 봉사단원들은 이날 4개월간의 해외 봉사활동이 협력심과 자신감을 키우는 값진 경험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코이카는 올해에도 도미니카공화국, 르완다, 몽골 등에서 신규 발굴된 9개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1차 프로젝트 봉사단원(4기)은 7월 16일부터 8월 5일까지 모집하며 관련 사항은 코이카 해외봉사단 홈페이지(kov.koic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이카-UN 기후행동 설루션 국제 공모전 시작

코이카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AI 기술 국제 공모전 'AI for Climate Action Awards(이하 AICA 어워즈)'를 개최한다. AICA 어워즈는 AI 기술을 활용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혁신 설루션을 발굴하는 국제 공모전으로 최빈개도국(LDCs)과 군소도서국(SIDS)의 기후위기 적응 및 완화를 위한 오픈소스 기반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설루션 발굴을 목표로 한다. 이번 어워즈에서는 농업, 에너지, 물, 폐기물, 조기경보시스템 등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AI 설루션을 찾는다. 만 18세 이상의 개인 또는 단체라면 국적 제한 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자는 7월 31일까지 모집했으며, 9월까지 총 총 3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우승자를 결정한다. 어워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ICA 어워즈 공식 홈페이지(aica.awardsplatform.com)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식 포스터 내 QR코드를 스캔하면 곧바로 접속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와 호혜적 파트너십 견인하는 개발협력 이어갈 것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기록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MAGAZINE KOICA VOL.7을 독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이번 VOL.7은 찬란한 실크로드 문명을 계승하며, 한국과 함께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고 있는 중앙아시아를 집중 조명하였습니다. 중앙아시아는 금, 우라늄 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함께 30세 이하의 활동 인구가 총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젊고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지역입니다. 게다가 유라시아 한가운데 위치해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고 위로는 러시아, 아래로는 인도가 있어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유리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의 인연도 깊고 각별합니다. 무엇보다 약 30만 명에 이르는 고려인 동포들이 이 지역에 뿌리내려 살아가며, 한국의 문화와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중앙아시아 5개국이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우리 정부는 이들과 본격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으며, 동반 성장의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2024년은 특히 우리나라와 중앙아시아 간 외교 수립 30주년이라는 뜻깊은 이정표가 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중앙아시아와의 오랜 인연 속에 코이카도 '사람', '성장', '지속가능성'의 세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을 발굴하며 이들 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함께 일구어 왔습니다. 기술인재 양성, 보건의료, 디지털 행정 역량 강화, 전력 공급을 통한 생활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습니다. MAGAZINE KOICA VOL.7에 담긴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가 함께 그려나가는 상생의 미래를 떠올려보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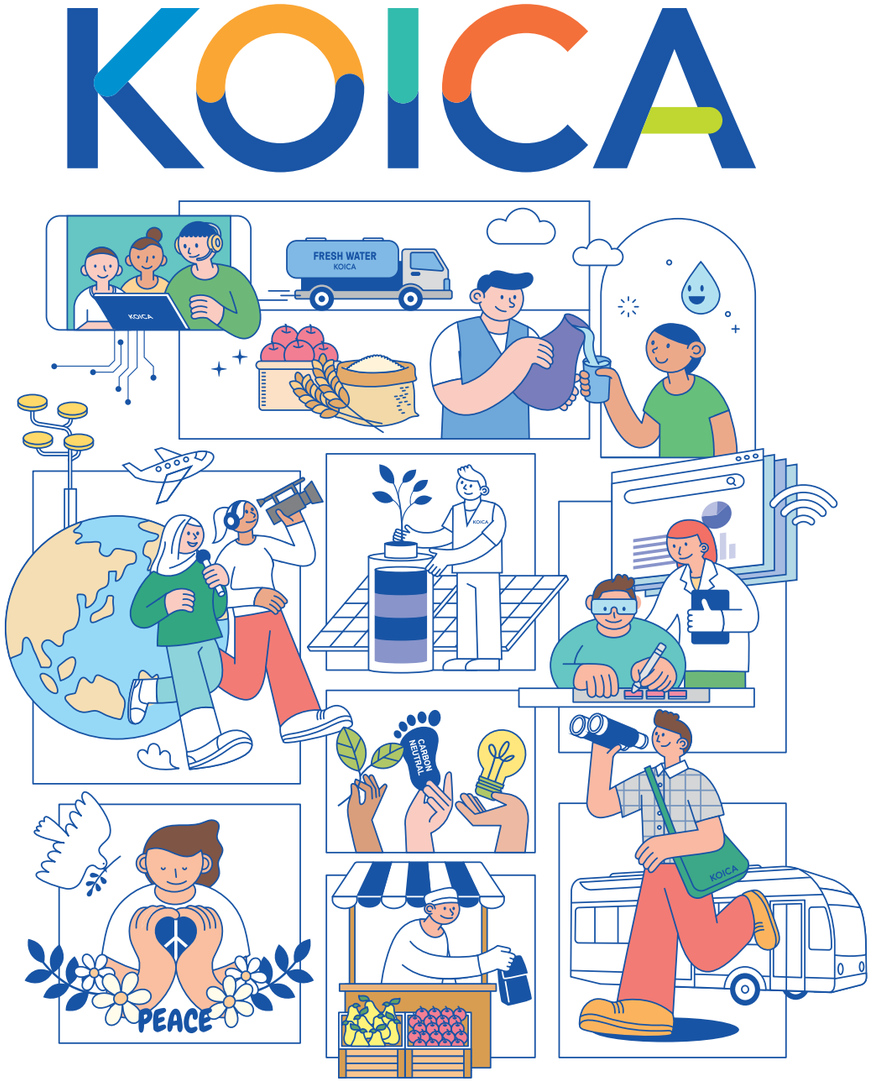
자국우선주의가 강화되는 국제 환경 속에서도 많은 나라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이카는 앞으로도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상생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며, 다양한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장원삼 드림

고익하를 찾습니다



코이카는 더 나은 내일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과 상생의 개발협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코이카는 선진국형 ODA 사업을 실현하는
대한민국 무상 개발협력 대표기관입니다.

KOICA

등록일자 2025년 7월 31일
발간등록번호 홍보 2025-02-120
발행일 2025년 7월 31일

발행처 한국국제협력단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전화 1588-0434
팩스 031-740-0260
홈페이지 www.koica.go.kr

기획·편집 한국국제협력단 홍보실
제작 (주)조선뉴스프레스
인쇄 타라티피에스

MAGAZINE KOICA
2025 VOL.7

Download **MAGAZINE KOICA**

홍보자료
홍보 2025-02-120

이제 MAGAZINE KOICA를
AI 오디오 브리핑으로 만나보세요!